

“北수령절대주의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COI 보고서 10주년 토론회서 북한인권법 개정 필요성 역설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유엔 북한조사 위원회(COI)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며 “이런 영향에 따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제안이 추천 자체로 출범하지 못하므로써 법은 8년째 사문화돼 있다”며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야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법 시행부터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5일 북한 최고 인민회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 폐지를 결정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부정한 채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옛 동독이 독일 단일 민족론을 부정하며 서독과 단절해 분단을 고착화하려 했던 것과 흡사하다”며 “북한의 두 국가 공세는 남한이 동족이 아닌 별개의 적대국가인 만큼 핵 공격의 대상이고,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권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 인도적 지원은 천재지변과 같이 일시적인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잠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 사회권규약)에 의하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

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그 의무에 반해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모든 가용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서 상시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인도적 위기는 현대 문명사에서 전무후무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의 3대 세습 폭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도적 위기의 원인 제거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또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아사자와 식량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한 식량부족뿐이 아니라 식량접근권의 약화(FED), 즉 비민주적인 자유권 박탈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시급한 것은 COI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의 촉진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호 증진”이라며 “북한 인권의 가장 열악한 부분 중 하나가 국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의 제정배경이 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중점 무력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북한 정보 유입을 위한 수단 등 제고를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초중등 교과서의 편향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 23조에 의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북한 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자체에 법률 규정으로 명확히 뒤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라는 명칭을 생략한 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3개월마다 이관하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COI 보고서 대로 R2P 원칙(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한번 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오른쪽 줄 맨 위가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에 설치했던 ‘잡초기터 중앙범무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라고 했다.

그는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범죄수사 전문가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이어받아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므로 법률에 명확히 그 명칭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반인도범죄 적결의지를 보여줘야, 그 억제 효과 등

실효성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인 핵 공격대상으로 삼아 대남교류기구를 모두 폐지한 북한 정권에 맞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한 북한인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COI 보고서에 맞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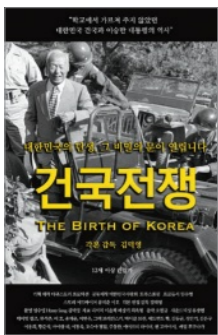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 하나님이 만드신 것... 저는 도구”

관객 30만 돌파하며 흥행, 김 감독 “교회가 영화 구했다”

이 영화 만들면서 엄청난 기적 체험
‘기독교인 이승만’ 못 다뤄 안타까워
영화 흥행, 진실 복원 측면서 반갑다
나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독교가 앞장



대한민국을 만
들고 지켜내기 위
해 노력했던 이승
만 초대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
생과 투쟁을 조명
한 다큐멘터리 영
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30
만 명을 넘으며 흥행하고 있다. 특히 영화
를 만든 김덕영 감독은 “교회가 이 영화
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과 개봉 후 흥행에 교회의 역할
이 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독교인인 김
감독은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만들면
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지난 번 <김
일성의 아이들> 때부터 경험했던 것”이라
며 “그래서 사실은 이 건<건국전쟁> 제작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개봉
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의 감독을 맡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위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김덕영 감독 SNS

유럽 여러 나라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에
대한 영화다. 김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일
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
고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잘 알려져 있듯이
기독교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따른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 그의 기독교 신앙
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다
만 영화 <건국전쟁>은 ‘기독교인 이승만’
에 대해서 크게 조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이승만의 기독
교 정신과 관련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에 대한 부분을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게 안타깝긴 하다”며 “전 국민이 봐야 하
는데 자칫 기독교 영화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다루지 못했다”
고 했다.

김 감독은 그러나 기독교가 이 전 대통
령 삶의 큰 부분임에는 분명하다며 “그래
서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은 굳이 영화
에 십자가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아도 기독
교 정신이 영화 속에 그대로 들어 있다고
이야기 하신다”고 전했다.

향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독교 신앙
을 다른 작품을 통해 조명할 의향에 대
해서 “생각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영화
라는 게 감독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재정적인 것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한다. <건국전쟁>과
관련된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 감독은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친북·좌파 세

력이 강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진실의 빛
을 세상에 드리우는 작업을 기독교가 하
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이 복원된다는
측면에서 반갑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좋겠
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이 더 발전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감독은 <건국전쟁> 흥행과 관
련해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니다. 영화가 자체가 괜찮기 때
문이다.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만족하고
감동할만한, 은혜받을 수 있는 내용 있기
때문에 흥행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목사
님들이 보라 한다고 해서 30만까지 올라
가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
다.

김진영 기자

럭셔리 라이프의 새로운 미래
리버레이크 송파 지금 강남아파트 마켓 절호의 기회!!

반값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우리집!

4천 500만원으로 잠실을 누리다!

석촌역 10초!!

중도금 무이자, 송파 랜드마크, 청약 통장 無, 35층 상향!

송파 5억 원대~
8·9호선 더블역세권! 황금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프리미엄 7가지

- ☑️ 석촌역 10초, 장성역 도보역세권
- ☑️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생활인프라
- ☑️ 장성종합운동장, MICE복합개발
- ☑️ 현대 GBC, 강남권 송파 미래가치 핵심입지
- ☑️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생활환경
- ☑️ 한강조망, 신강남의 중심
- ☑️ 주상복합 고품격 커뮤니티

40㎡ · 55㎡ 아파트 | 총 380세대

전화상담 후 광고지 지참 방문시 **홍삼세트 증정**

문의 02)532-0062

| 시공(예정) | **대우건설** | 자문(관리) | **모로혁신빌**

美 레이크우드 교회서 총격... 총격범 사망·2명 부상



2024년 2월 11일 미국 레이크우드교회의 조엘 오스틴 담임목사가 총격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BS TEXAS 보도 캡처

미국 최대의 교회인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우드교회(Lakewood Church)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말인 11일 오후 1시 53분경, 30대 여성 총격범은 2시 스페인어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교회 건물로 들어섰다. 이 여성은 긴 소총을 들고, 트랜치 코트와 베낭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5세 남이를 동반했다.

휴스턴 경찰국 트로이 피너 경찰서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텍사스 주류위원회 요원이 쓴 창에

맞아 사망했다. 5세 아동은 중상을 입어 텍사스 아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위독한 상태에 있다. 또한 교회에 있던 57세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너 경찰서장은 사건 당일 기자회견에서 "비반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자신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이 그녀의 배낭과 차

량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은 1만 6000석 이 있는 예배당과 교회를 수색했다.

피너는 총격범이 "정체불명의 물질을 뿌리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휴스턴 소방서 산하 위험물질 처리팀에 의뢰했다. 사무엘 피너 소방서장은 "우려했던 만 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태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교회가 황폐화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안개 속에 있는 기분이 든다"면

서도 "5세 소년, 사망한 여성과 그 가족, 다리에 부상을 입은 57세 남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하다"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레이크우드교회는 매주 4만 5천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오스틴 목사와 교인들은 20년 전에 휴스턴 로켓츠 NBA 농구팀의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하고 개조하는데 사용된 1억 달러

대출금 전액을 최근에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목사는 12일 오후 7시에 CP에 보낸 성명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두운 때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이 비극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지만 또한 굳건해진다.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안다. 치유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에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유진 김 기자

인도 교계 지도자 "인도 내 종교적 극단주의 통제 시급"

2024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2024)에 참석한 인도 성공회의 조셉 드수자(Joseph D'souza) 주교가 자국 내 기독교인 박해와 마니푸르 사태 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전 인도 기독교 평의회(All India Christian Council) 회장인 그는 크리스천 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기독교인 박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인도 정부는 중국의 전 세

계적인 영향에 맞서기 위해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을 구축하면서도, 인도 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드수자 주교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와 성명을 보면, 미국 정부는 인도 상황에 대해 명확히 표명했고 정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다방면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본다"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의 종교적 자유 붕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인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를

훼손하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통제되어야 하며,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인도의 문제는 독립 이후 우리가 경험해 온 자유와 조화가 조직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드수자는 특히 마니푸르(Manipur)의 상황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마니푸르 주는 지난 9개월 동안 주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쿠키(Kuki)족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마니푸르 계곡 인근에 위치한 약 400개의 교회

와 기독교 기관이 파괴되었다.

드수자는 "마니푸르 주에서 힌두교도가 장악한 지방 정부는 쿠키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테러 활동에 관여하거나, 미얀마의 왕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 비난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주의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하람비 메이테이(Harambi Meiteis)'로 알려진 폭력적인 무장 단체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며 이들이 "현재 그곳(메이테이주)에 설립된 헌법적 주정부 구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장 단체가 지역 의원들에게 '쿠키족의 이주를 비롯한, 이 단체의 비전과 요구사항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요

구했다"고 했다.

드수자는 "인도와 북동부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인도의 완전성과 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북동부의 해묵은 분리주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도의 기독교 소수 집단이 "인도에 매우 잘 통합되어 있다"며 "이것은 누구도 인종이나 종교에 따른 분열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인도의 종교 자유 운동가들은 모디와 바라티야 자나타당(BJP)당이 권력을 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박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수년간 경고해 왔다.

드수자는 "(인도의) 사법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법원과 기타 사법 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만큼 많은 좌절



조셉 드수자 인도성공회 대주교가 2024년 1월 31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크리스천포스트

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모디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별개로, "인도의 완전성과 통합은 물론, 쿠키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 김 기자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m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m

美교회, 메타버스 사용 예상 크게 밀돌아

최근 발표된 '2024년 교회 기술 현황' 연구에서 교회 기술 관련 직원 2200명 중 단 5%만이 현재 메타버스(Metabus)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결과는 신앙과 비영리 부문 결재 및 참여 솔루션 업체 '푸시페이(Pushpay)'가 202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 대조된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 중 8%가 현재 메타버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 4곳 중 1곳(25%)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사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또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를 통합할 것을 고려한 리더의 수는 32% 감소했다"며 "이러한 인기의 급격한 하락은 대중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기술은 수년간 존재해 왔지만, 페이스북의 '메타(Meta)'로의 브랜드 변경 및 그들의 새로운 메타버스는 2021년 말부터 크게 홍보되어 2022년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며 "오늘날 이 현상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일반 대중의 열정은 상당히



미국의 비영리 교회인 오아시스 처치(Oasis Church) VR은 메타버스에만 존재한다. ©크리스천포스트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의 VR 헤드셋은 개인에게 값비싼 투자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배워야만 한다.

연구진은 "언론 보도가 줄면서 함께 메타버스와 VR이 교회 공동체에 뚜렷하게 수용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전의 때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고 했다.

2023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트스페이스(Altspace VR)'를 종료한 것도 교회 예배에 적용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13년 출시된 알트스페이스 VR은 최초의 소셜 VR 플랫폼 중 하나로,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을 제공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메타의 분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부문은 이 기간에 46억 50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CNBC에 따르면, 2020년 말부터 메타버스 사업부는 4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회사는 이 플랫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분야에서 지속적인 제품 개발 노력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영업손실이 해마다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메타의 자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의 대표인 체본 루이스(Chevon Lewis)는 이전에 메타버스를 "당신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조하고, 탐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집합"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스는 "우리는 메타버스를 소셜 기술의 다음 단계이자,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진 김 기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연방 대법원이 가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2024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 주 유권자 6명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대법원의 주목을 받으며,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미국 헌법 제14조를 근거로, 1월 6일의 국회 공격으로 인한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직 수행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4대 3의 판결로 트럼프를 투표장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적 논란이 예고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체계 그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주요 대선 후보가 투표장에서 제외되면 미국 내에 혼란과 소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격 무효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중도보수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여러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대통령직 수행시 대법관 임명은 전국적인 낙태 권리 폐지와 종교 자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은 바 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사안은 앞으로 몇 달간 미국 사회의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한 기자

칠순 나이에 의료 현장 이끌어가는 전문의사들

유방암센터 배영태 센터장·온종합병원 외과 김동헌 병원장

부산 온종합병원 유방암센터의 배영태 센터장은 올해로 칠순의 나이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60대 여성의 오른쪽 유방 보형물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는데, 이로써 은퇴를 고려했던 그가 다시 메스를 잡게 되었다. 배 센터장은 부산대 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가진 유방암 수술의 권위자로서, 현재는 부산 온종합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배 센터장은 의사 동료이자 제자인 정영태 과장과 함께 시행한 콤팩트 수술은 높은 전문성과 성공률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배 센터장은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의 탁월한 실력으로 유명하며, 중앙질제과 유방 복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윈스톱 중앙성형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온종합병원 유방암센터 배영태 센터장은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실을 드나드는 일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몹시 가슴 뛰게 한다”며 “특히 이 나이에 젊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콤팩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스스로에게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배영태 센터장과 콤팩트 수술을 한 유방암센터 정영태 과장은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승님과 콤팩트수술은 수많은 외과 의사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라며 “앞으로 스승님을 모시고 유방암 수술 노하우를 완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관외과전문의 김동헌 병원장도 부산 온종합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병원장은 부산대병원 교수 출신으로,



수술 중인 배영태 교수의 모습. ©그린닥터스재단

교수 시절에는 수많은 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그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신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게 되었다.

김동헌 병원장은 “나이 든 외과외과가 수술실을 드나드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나?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위축된 필수 의료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단순히 의사 수만 늘



김동헌 병원장이 진료를 들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리는 데 그치지 말고,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조정과 사법 리스크 해소 등도 동시에 이행돼야만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사 모두 고령이지만,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여전히 필수 의료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지동 기자

尹대통령에 “저출산 극복 ‘범국가 대책팀’ 구성” 제안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 성명에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웠고, 2024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 한다”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50%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넉 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국가적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민청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 자체가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정부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 문제 등의 실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있지만, 이것 자체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아이돌봄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50%만 대응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다른 50% 문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늦게 결혼하는 만혼의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기혼 가정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며 “기혼 가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돌보고 교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 돌봄 문제 해결만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방송과 미디어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혼을 통한 가정과 출산으로 말미암는 행복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은 비혼, 만혼, 이혼 등을 마치 시대적 아이콘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며 “일부 여성계는 여성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4B 운동(비연애, 비혼, 비성관계, 비출산)을 주장하고, 자유로운 낙태와 성별 전환, 동성애, 동성결혼, 동거커플 가족인정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출산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우선 문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아이 돌봄을 위해 제시하는 늘봄학교는 혼자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초·1학년 학생에게는 절실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사교육으로 빠져나간다”며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늘봄학교와 돌봄 전문가로만 구성된 보건복지부 돌봄센터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는 방과후이지만 8시간 근무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혼자서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빠져 있는 적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ADHD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실내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늘봄학교에는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인성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등학생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돌봄센터를 확산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기공협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 종교계, 방송

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NCCK 사순절 메시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 총무 김종생 목사)가 14일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순절은 부활절(3.31) 전까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다.



포기하지 않은 채 참혹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에도, 또한 지금에도 너무나 위협해 보인다. 그러나 주님의 위협한 선택의 결과는 경계 밖에서 천대받는 이들, 배고프고 외로운 이들, 울며 탄식하는 이들, 외롭고 지친 이들이 눈물을 닦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사랑이었다”며 “우리는 무모하지만 위험한, 그러나 따뜻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들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2024년 사순절을 맞아 다시, 사랑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인간 외의 생명을 탈생명화하는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죽음의 길을 참회하고, 작은 생명 하나를 위해 위협한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CCK는 “이전에 두려워했던 그 길을 다시,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위협한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자. 다시,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복협,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한국교회 일치’ 주제로 월례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협)가 오는 2월 16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 아카데미 라운지에서 2월 월례회 개최를 앞두고 발표회를 개최한다.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한국

교회 일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박종구 목사(월간복음의 대표)와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가 발표한다.

또 행사 전 기도회에서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교하고, 참석자

들은 “한국교회를 위해”(한세대 이관표 교수) “우리나라를 위해”(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박해원 교수) 기도한다. 한편 행사는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원로,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된다. 장지동 기자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도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저축 NH농협투자 NH농협카드

배재대, 서울 정동에서 수험생 대상 '배재안항캠프'



캠프 참가자들과 배재대 김욱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재대

배재대학교(총장 김욱)는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 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배재대배재학당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배재안항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달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역사박물관(1916년 건립서울시 기념물 제16호)'과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일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배재안항캠프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배재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배재대학교의 정체성을 알리고, 배재교육 선행 학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재

학당(培材學堂)은 1885년 8월 3일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했다. 학교법인 배재학당은 서울 강동구에서 배재중과 배재고, 대전 서구에서 배재대학교와 배재대 부속유치원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배재안항캠프에선 배재대학교에 지원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재학당을 설립할 당시 역사 이야기를 '정동 산책길에 배재를 만나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엮어 배재학당의 역사를 수험생에게 알려 수험생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수험생들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관람하며 민족시인 김소월, 한글학자 주시경,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등 배재학당 출신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청취했다. 이곳에선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 우리나라 최초의 그랜드 피아노인 '배재학당 아펜젤러 피아노' 1886년 6월 8일 고종(高宗)이 하사한 배재학당 현판 등을 둘러 보기도 했다.

캠프에 앞서 조보현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서울 정동은 138년 전 애했었던 조선을 신교

육, 신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20대 청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세운 기념비적인 곳"이라며 "배재의 숭고한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욱 총장도 아펜젤러 기념공원에서 수험생과 만나 "살얼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배재대와 배재학당을 방문한 수험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크고자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학당의 당훈(堂訓)처럼 대학에서 여러 학문을 익히며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지동 기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 우습게 보는 풍조 팽배”

김추성 교수 “어마어마한 축복과 실제 담긴 명제”

김추성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가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팽배하다”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는 기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간지 온라인판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은 잘못된 것인가'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구원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명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실재가 담겨 있다”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의 실재를 믿는다면 결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볍게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구원 신앙이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결국은 모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본적 진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며 “어느 사도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 진리를 파괴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구원 진리의 중요성(롬 1-8장)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던가.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고 있다.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가 구원 진리를 경홀히 여기고 있다. 오해려, 사도들은 구원 진리를 초석으로 다진 후에 성도의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은 이렇게 중요하다(히 2:3)”고 역설했다.



김추성 교수 ©기독일보 DB

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는 기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다. 구원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 진리를 무너뜨린 서구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2024 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 21일부터 3박 4일간 열린다



주제로 열린다.

2024 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이하 '2024 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성산예수마을에서 '싸매고 고치라' (사 30:26)를 주제로 열린다.

주최 측은 “한국, 일본, 중국 삼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모임”이라며 “한국의 강화도에서 3박 4일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치, 역사적으로 갈등과 긴장 관계인 한중일 삼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형제 연합의 기쁨'(시 133:1)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열방을 품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과 감격,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 주소(threetogether2024@gmail.com), 전화(주성일 간사, 010-9054-0446)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손덕용 목사 별세

향년 91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인 손덕용 목사(청주서원교회 원로)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최근 건강 문제로 몸이 쇠약해져 한달여 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故 손덕용 목사는 1934년생으로 부여마정교회, 부여중앙교회, 청주서원교회 등에서 사역했다.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은퇴 후에 성광회장, 은퇴목회자 예배공동체인 본부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부여중앙교회 시절 전 총회장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를 비롯해, 최준연 목사(장원제일교회), 이인한 목사(남천교회)



故 손덕용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를 가르쳤으며 많은 교단 목회자들의 스승이자 선배로 존경을 받아왔다.

고인의 발인예배는 2월 14일 오전 6시 30분 교단장으로 엄수된다. 김진영 기자

KOMKED, 2024 MK인턴선교사 모집한다

신청기한 오는 21일까지

170여 개국 파송 선교사의 자녀(MK)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이 2024 MK인턴선교사(20기 SMTC & KOMKED)를 모집한다.



인턴선교사 훈련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강의수업은 오는 3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국내선교는 7월 초에서 7월 중순, 해외선교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수료식은 8월 말에 있다.

수료생 지원 사항으로는 MK인턴선교사 수료생은 장학금을 수여하고, 훈련기간 국내 및 해외 선교비는 전액 지원(훈련 등록비, 항공료, 해외 체제비 등)하며, 수료 이후 장기선교사의 비전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심화 훈련과 내부 심의 거

쳐 새중앙교회와 콤케드의 파송 선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선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인턴선교사 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면접일자는 오는 22일, 합격 통지는 다음날인 23일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선교사 자녀(대학생 및 직장인 모두 지원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8명이다.

신청접수는 구글 신청서(bit.ly/smtc_mk)로 작성하며, 문의사항은 02-817-1164(komked@komked.org)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N°14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동화약품 SINCE 1897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위험



일러스트: 또뚝(ttotot)



“중국 알면 세계가 보여... 열방을 섬기는 인재 키워요”

정주국제학교 2024년 봄학기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지리·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G2(미국-중국) 시대에 한반도는 양대 강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의 요충지가 되어왔다. 중국과 미국,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이미 16년 전부터 바른 인성과 영성, 우수한 지식, 뛰어난 중국어 및 영어 구사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해 100%에 가까운 중국 명문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국제학교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정주국제학교 대표 이후진, 교장 이수아가 2024년 봄학기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 기간을 맞아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중국 명문대 진학 노하우와 시스템의 특징을 소개했다.

정주국제학교 대표이자 하남성정주한인회 회장인 이후진 대표는 이날 “저희 학교의 큰 비전은 학생들이 열방을 섬기고, 중국과 세계를 섬기는 당찬 꿈을 꾸는 것”이라며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학교가 잘 세워져, 교육받는 학생들이 영적 성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삼성에서 20년간 재직 후, 2008년 9월 정주국제학교를 설립한 이후진 대표는 자신의 이름과 발음이 같은 ‘후진(後進)’을 ‘양성(養成)하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이라 사명감으로 삼고, 이를 실천해 왔다. 이 대표는 “열매 전 한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이 80%나 감소했다. 중국과 열방을 섬기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된 저희 학교도 팬데믹 이후 학생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도 녹록치 않고,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중국 유학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서 크리스천 마인드로 교육하고 운영되는 학교는 갈수록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과거 교육부 장관상을 받고, 작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민훈장을 수훈하기도 한 그는 “이번에 대통령 국민훈장을 받은 것은 다시 한번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거듭나도록 양육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각오를 밝혔다.

정주국제학교는 또한 학생들에게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해 지식 교육을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언어, 문화가 낯선 타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해나가며 홀로 사야 하는 조기 유학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만큼 유학생 관리가 중요한데, 정주국제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성과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후진 대표는 “학업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믿음이 반듯하게 잘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의 대목”이라며 “기성적인 교육보다 인성, 영성, 지식을 관리하는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주국제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졸업 후 미래 진로가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중국 임시 체제를 활용해 중국 최고 명문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조기 유학생들도 2,500여 명의 현지 중국 학생과 중국어 교육을 받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

실감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섬김을 말로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진 대표·이수아 교장 부부를 비롯하여 교사 전원이 학생들과 캠퍼스 내에서 24시간 생활하며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다. 어른들의 삶을 통해 섬김을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도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섬기셨듯, 어른들이 먼저 학생들을 섬기면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부모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훌륭한 영적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6년째 아이들과 똑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대표 부부와 교사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지지 아래서 학생들이 더 빠르게 타국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도 상승할 수 있었다.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가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 진로도 희망적

정주국제학교의 ‘섬김의 실천’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 방식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동기가 됐다. 이로써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하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가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주국제학교는 15년간 총 2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중국 명문대 합격자는 북경대 15명, 청화대 24명, 복단대 68명, 인민대 85명, 상고대 23명, 복사대 78명, 절강대 56명이었다. 한국대학 수시 및 특례(연대, 고대, 성균관대 등) 합격자는 15명이다. 동문 중에는 북경대를 졸업한 후 포스코(POSCO) 공채에 합격해 근무 중인 사례도 있다.

◇“정주국제학교가 양성한 학생들, 한국에 큰 희망 될 것”

이러한 특장점으로 인해 정주국제학교는 그동안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도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지금도 학부모후원회와 졸



정주국제학교 캠퍼스 전경 ©정주국제학교

면서 정확한 중국어 발음과 표현력, 빠른 언어 구사력을 키울 수 있다. 또 자체 입시반을 운영해 학원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만으로 북경대, 청화대, 복단대, 인민대, 상고대, 복사대, 절강대 등 중국 명문대에 100% 진학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대학들은 대학교 학비가 저렴하여 부모들도 경제적 부담을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가 많이 움직이는데, 중국어와 영어 구사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세계적 정서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실제 대학 졸업 후에도 중국어, 영어를 겸비한 학생들은 취업 준비 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부터 대학 시절과 이후 살아가는 좋은 코스를 밟아가며 성장할 환경과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나 한국인 자녀는 한국 대학 특례 대상자로, 정주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전문수업을 통해 한국대학에 수시(특례) 입학할 수 있다.

실제 정주국제학교는 15년간 총 2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중국 명문대 합격자는 북경대 15명, 청화대 24명, 복단대 68명, 인민대 85명, 상고대 23명, 복사대 78명, 절강대 56명이었다. 한국대학 수시 및 특례(연대, 고대, 성균관대 등) 합격자는 15명이다. 동문 중에는 북경대를 졸업한 후 포스코(POSCO) 공채에 합격해 근무 중인 사례도 있다.

◇“정주국제학교가 양성한 학생들, 한국에 큰 희망 될 것”

이러한 특장점으로 인해 정주국제학교는 그동안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도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지금도 학부모후원회와 졸



2023년 졸업식에서 학교 임직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인 학부모후원회 회장, 이후진 정주국제학교 대표, 서병우 학부모장학회 부회장 ©이지희 기자

업생 부모들로 결성된 학부모장학회는 학교의 큰 부담목이 되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두 자녀를 모두 정주국제학교에 보낸 학부모후원회 박호인 회장은 “큰아이는 복단대 2학년이고, 둘째도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 정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조카도 입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교류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아니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교류할 때 교무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중국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며 “중국어를 알고 중국 교육을 받은 사람을 특채로 뽑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한국의 국력을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정주국제학교가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면 우리나라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부모장학회 서병우 부회장(재학생학부모 부대표)은 “저도 학부모님의 소개를 받아 믿음으로 자녀를 정주국제학교에 보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정주국제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같이 케어하고, 또 형, 누나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인성을 배우고, 가족애를 배우며 제대로 커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잘 자란 모습을 보며 값진 선택이었음을 알게 됐다. 정주국제학교를 만난 자체가 학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진 대표는 “많은 분이 한중관계 위기를 호소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이제는 정말 중국을 바라보는 목표와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만 유학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진 대표는 “많은 분이 한중관계 위기를 호소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이제는 정말 중국을 바라보는 목표와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만 유학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유/학
정주국제학교 2024년 봄학기
신입생·전학생 모집

1. 엄격한 학업생활

- 인문·자연·사회·체육 등 4개 영역의 심화 학습
-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를 동시에 학습
- 인성·영성·문화·역사·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교육
- 학부·학과별, 학년별, 학종별 맞춤형 교육

2. 국제화 교육

-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문화·역사·언어 교육
- 다문화 이해 능력 향상 (영어, 중국어)
- 국제 교류 프로그램 (수시, 특례) 지원
- 다문화 이해 능력 향상 (영어, 중국어)

3. 중국 명문대 100% 진학

- 중국 명문대 100% 진학률
- 중국 명문대 100% 진학률
- 중국 명문대 100% 진학률

4. 한국대학 특례(수시) 진학

- 다문화 가정 자녀(특례대상자)
- 다문화 가정 자녀(특례대상자)
- 다문화 가정 자녀(특례대상자)

개교 15년만 명문대 합격자 현황

| 연도 | 북경대 | 청화대 | 인민대 | 상고대 | 복사대 | 절강대 | 합계 |
|-----|-----|-----|-----|-----|-----|-----|------|
| 15년 | 24명 | 68명 | 85명 | 23명 | 78명 | 56명 | 334명 |

정주국제학교
Korea District Heating Corp. (KDC) 계열

반 학교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학교”라며 “기독교적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와서, 현장에서 믿음의 분이 되고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주국제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만큼 급기사항이 있다. 학생이 학생다울 수 있도록 음주 및 흡연이 안 되며, 언어 및 물리적 폭력, 왕따 등 서로 간 상처를 주는 폭력을 금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다. 졸업생은 중국교육부와 한국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등록금은 일반 국제학교의 50~60% 수준이며, 목회자 자녀와 일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입학 문의는 중국 18638013570, 한국 010-4932-2004

이지희 기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아이들 보호 위해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에 참여합시다”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 및 청원서 서명 설명회 열려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 서명 가능
55만명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서명 받아야
한인 목표: 5만 5천~7만 서명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가 7일 오전 10시에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이 중점으로 강조되며 진행됐다.

최근 한인 교계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 부모 권리 보호 2.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보호 3. 미성년자의 화학적외과적 성전환 금지 4. 부모의 알 권리 회복 5.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본부 측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비전 캐스팅을 한 강승연 목사(JAMA)는 “세크라멘토 의회가 다시는 이런 악법을 세우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주민발의안을 통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장보고를 한 유수연 위원장(ABC교육구 위원회)은 “지금은 문화 전쟁, 문화 마르키시즘, 문화 공산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사탄의 밤이 되고 있다”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회개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기도의



기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불이 각 교회에 불 붙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명운동에 다 동참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명 방법을 안내한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2011년에 SB48 할때 서명운동을 펼쳤음에도 나중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뒤집혔었다. 이번에 무효표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명 전략 보고를 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믿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비전 운동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등록 안내를 한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찬헤럴드)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서명만 하면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며 “방관의 죄, 무관심의 죄가 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은 죄책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부에 따르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하는 서명들이 많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4월 13일까지 TVNEXT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서명한 용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해야 함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압관 선을 넘으면 안 됨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함 ▶절대로 P.O. Box는 안되며, PO Box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

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함. ▶수정액(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금지.

청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TVNEXT의 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한편, 기도대회에서는 신승훈 목사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렘 33: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회계의 축구 ▶중보기도의 서명자 헌신 ▶미국과 남가주의 부흥 ▶주민발의 성명운동 ▶미국 선거 ▶전쟁 지역의 평화 ▶선교지와 선교사의 축복 ▶대한민국 축복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3부 시간에는 주민발의 서명운동 설명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명운동 관련 문의는 세크라멘토 본부 TVNEXT.org@gmail.com, 남가주 지역: 윤우경 권사(714-873-9164: 문자 연락, psnewsdesk@gmail.com) 강태광 목사(323-578-7933) 토마스 멩 기자

건강한 목회 리더십을 이어가는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건강한 사역자를 찾아서(3)

남가주에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충현선교교회(국윤권목사)는 아름답게 세대교체를 이어가고 있다. 1985년 8월에 교회가 창립된 이래 건강한 목회자의 세대교체를 이루며 성장과 부흥을 이뤘고 있다. 충현선교교회는 1대 정상우 목사에게 이어, 2대 담임 목사인 민종기 목사(현 KCMUSA 이사장)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고 3대 담임 목사인 국윤권 목사가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충현선교교회를 3대 담임목사로 섬기는 국윤권 목사는 남가주 출신이다.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교에 진학한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경험한 후에 다시 남가주로 돌아왔다. 교회 생활과 더불어 성장한 국목사는 천상 목회자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가슴으로 교회와 성도를 품고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다.

◆그의 삶의 축복이 된 네 분의 목사님과의 만남
국윤권 목사는 네 분의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는다. 우선 목회자 이신 아버지를 통해 섬김의 가치를 배웠다. 아버지가기에 가깝게 지냈기에 갈등과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님이 목회자로 보여주신 모델이 국목사의 삶과 사역 곳곳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국 목사가 큰 영향을 받은 두 번째 목회자는 시카고에서 만난 전은상 목사님이다. 고신 교단의 저명한 원로 전은상 목사님은 삶의 영성과 경건의 향기가 넘쳐나신 분이다. 전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은 국 목사에게 큰 축복이다.

국 목사가 세 번째로 경험한 목회자는 에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다. 송 목사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어린이 사역부터 노인 사역까지 교회 모든 사역을 경험했다. 송상철 목사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설교를 배웠다.

국윤권 목사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권준 목사를 만났다. 권 목사의 조화로운 리더십,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실제 목회를 배웠다. 성장기, 시카고 사역, 에틀란타 사역의 경험을 종합하는 목회 실습과 권준 목사의

멘토링으로 국윤권 목사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용 덕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충현선교교회를 향한 신뢰와 자부심도 크다.

정방절차를 마치고 충현선교교회를 다시 보면서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교회의 저력과 성도들의 성숙함을 확인하고 더 뜨겁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리라는 다짐으로 취임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후 약 9개월간 전임 민중기 목사와 공동목회를 했다. 이 9개월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우선 국목사는 민중기 목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든든한 신뢰를 쌓게 되었다. 둘째는 충현선교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남가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

도들의 삶의 현장을 목회자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로 이 9개월의 공동목회를 통해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와 자신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얻게 되었다. 담임 목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가진 잠재성과 더 일해야 할 부분을 발견한 기간이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담임목사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다.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국목사는 세 가지 비전을 품는다. 첫째로 그는 충현선교교회가 다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한인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를 위해 양보와 헌신 그리고 겸손한 섬김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처럼 국목사와 충현선교교회가 든든하고 복된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둘째로 국목사는 인생의 종착역이 행복한 생명을 세우는 목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종착역을 위해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교회 측 제공

달린다. 종착역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국목사는 어린 세대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노인 사역에 남다른 관심도 있다. 인생의 종착역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천국 소망이 분명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종착역이 행복한 삶은 노년의 삶에 사랑과 돌봄을 느낀다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종착역이 행복한 삶은 다음 세대가 복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셋째로 국윤권 목사는 다음 세대에 건강한 영성을 전수하는 목회를 꿈꾼다. 현재 상태로 보면 한인 2세가 한인교회의 영적 계승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2세의 영적 상태나 문화는 미국 교회가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한인교회의 영성과 문화를 공유하고, 한

인교회의 영적 전통을 계승할 1.5세대 2세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 한인교회의 영성과 영력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다음 세대에서도 섬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비전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국목사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계획을 갖고있다. 우선 여러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기도하며 준비한다. 1.5세대로 영어에 능통한 그는 한어사역안에 영어 사역의 강화를 통해서 젊은이를 양육하는 것도 기도하며 준비한다. 이런 점에서 충현선교교회 EM(현영어부)사역은 다민족을 품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을 고민한다. 국목사는 이런 비전이 허망한 꿈이 아니라 실현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윤권 목사는 칼 스테이트 롱비치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rinity Evangel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 Div)와 신학석사(Th. M.)를 졸업하였다. 시카고와 에틀란타 지역에서 부교역자로 목회 실습을 한 후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목사)에서 부목사로 다양한 목회 경험을 했다. 그는 권준 목사의 추천으로 미주 아버지학교 지도목사로 미주 전 지역 아버지 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다. 강태광 기자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소화 · 정 장 · 변 비 · 영 양 에 는 **일반의약품** Since 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 비, 영 양, 과 식, 체 향, 설 사, 묽은 변, 구 역, 구 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 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유대계 미국인 46% “반유대주의로 인해 신앙 표현 위축”

2024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2024)에서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유대인들의 신앙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 벨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정상회의 공동 주최자인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가 참여한 이번 패널 토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여 12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살해한 후에 진행되었다. 인권 및 정의를 위한 란토스재단(Lant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회장인 스웨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문에 유대교 신앙의 상징인 ‘메주자(Mezuzah)’를 걸 때의 반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문밖에 걸어도 안전할까? 헝가리에서는 메주자를 걸었지만,

우리는 아파트 안에만 걸었고 밖에는 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유대인위원회(AJC)의 정책 및 정치 사무국 이사인 줄리 레이먼(Julie Rayman)에 따르면, 유대계 미국인의 46%가 유대교 신앙을 외부에 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 유대인들은 메주자를 걸거나, 키파(Kippah) 또는 야물케(yarmulke) 모자를 쓰거나, 회당에 참석하는 등의 신앙 표현을 꺼려하고 있다. 레이먼은 지난달 31일 정상회의에서 “내 자녀들이 히브리어 학교를 시작할 나이에, 남편은 이러한 반유대주의 때문에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의 반유대주의 감시 및 대응 특별 대사인 아론 키악(Aaron Keyak)이 패널로 참석했다. 키악은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미국 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악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에 대해 유



미국유대인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의 줄리 레이먼(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IRF 서밋 페이스북

(Aaron Keyak)이 패널로 참석했다. 키악은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미국 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악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에 대해 유

대인이나 특정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반유대주의”라며 “중국이 위구르족을 대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국 식당 앞에 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특히 워싱턴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는 외국 정부의 행동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표적 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미국 국무부와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종교 기관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자유수

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3개월 동안 미국에서 1317건의 반유대주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스웨트는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며 “연대,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존경과 감사함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당신이 유대인 친구들과 이웃들, 강간당하고 잔인하게 학대받은 유대인 소녀들을 위해 일하신다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당신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하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1월 30일부터 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O)도 조직 파트너로 참여했다. 유진 김 기자

제5회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 국승호 신임회장 선출

2024년부터 1개 감찰회 늘어, 3개 감찰회 통해 효율적인 소통 도모

제 5회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가 지난 6, 7일 스와니 소재 뿌리깊은교회(담임 국승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에서 “제자의 삶을 삼시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윤병 직전회장은 “목회의 최우선순위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수차와 모욕도 참아야 한다. 목회의 길은 자기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 회장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원한다.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시작된 회무에서는 지난 회기 각종 활동 보고에 이어 신규 임원 선출로

이어졌다. 선출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국승호 목사, 장로부회장 이기재 장로, 목사부회장 이경원 목사, 서기 김중열 목사, 회계 이희진 목사, 부회계 김종규 목사, 부서기 이주일 목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국승호 목사는 “우리는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작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붙잡는 것과 같은 작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지방회가 정말로 주님 없으면 못 사니, 꼭 붙잡는 이런 자세로 살기를



제5회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소원한다”고 권면과 다짐을 밝혔다. 2024년부터는 지방회 내 1개 감찰회를 늘어난 회원 교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3개 감찰회로 나누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미주성결 신학대학교 황하균 총장과 황영송 부총장과 애틀랜타한인교회 협의회 유근준 회장, 최명훈 부회장 등이 방문하여 지방회 개최를 축하했다. 앤더슨 김 기자

오는 3월 미주 다니엘기도회, 미주 영적 회복 기대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인 다니엘기도회가 미국에서 미주다니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편교회(김은호 목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16,000 교회의 동참 속에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26년간 진행된 기도회다. 이번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는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상 목사를 시작으로 이용훈 성악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용규 선교사, 지선전도사, 류은영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

회)와 오윤아 집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김명선 목사와 심형진 목사, 김윤진 간사가 찬양을 인도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는 3월 3일(주일)부터 9일(토)까지 7일간 델러스 기준 매일 저녁 7시 30분에(뉴욕-PM.8:30, LA-PM.5:30) 진행되며, 장소는 델러스 세미한 교회(은상 목사)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영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미주 지역 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치료 등을 도움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열방을 향해 다함께” 미주 한인 침례교회 선교 방향 제시한다

미주 지역 850여 한인 침례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오는 3월 1일(금)부터 3월 2일(토)까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에서 개최된다.

“Reaching the Nations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는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송경원 목사, WA)가 주최하고,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장 조낙현 목사, 총무 강승수 목사, CKSBCA)와 서북미한인침례교회협의회가 후원한다. 선교대회 강사로는 IMB 부총재 토드

라퍼티 박사(Dr. Todd Lafferty)가 나서며, 미국 선교를 비롯해, <난민 선교와 미래 선교전략>, <미국 내 디아스포라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현황과 IMB의 사역>, <선교를 위한 기도 동역>, <아시아 차세대 선교사 전략>, <선교사 과업과 동원 과업>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남침례교단 및 북미선교부의 교

회 개척과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한인 침례교회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침례교회 내 선교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한편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IMB는 1845년 이래 2만 5천여 명의 남침례교 선교사를 전 세계 185개국에 파송하여 복음 전도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 오고 있다. 김민선 기자

뉴비전교회 2024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수강생 모집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 21110 66th Ave. W. Lynnwood, WA 98036) 한국교회에서 2024년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봄학기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학비는 245달러이며 형제가 함께 등록할 시 등록비 감면 혜택(학생 2명 \$450,

학생 3명 \$550)이 있다. 등록은 뉴비전교회 2024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등록 웹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등록 문의 및 안내는 전화 360) 348-9746 또는 이메일 seattlekoreanschool@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 부담 없는 실투자금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청약통장 무관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 **2ROOM 3BAY 특화평면**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예) 하우스키팅, 핏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중메이플라워 교회, 긴 여정 끝에 美망명... 예배 장소 찾아

수년의 과정을 거쳐 최근 미국 망명을 허가받은 박해받는 중국인 교인들이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메이플라워 교회'로 알려진 심전성개혁교회 교인들이 미들랜드 제일침례교회(FBC) 캠퍼스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중국인 교인들은 예배를 위해 교회 청소년 센터에 모였으며 일주일에 세 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벅티스트 스탠다드는 전했다.

다린 우드(Darin Wood) FBC 미들랜드 목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며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것을 더욱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드 목사는 "메이플라워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위해 주어진 청소년센터 공간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라며 "그들은 이전에 예배할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7세기 순례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한 배의 이름을 딴 메이플라워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박해와 심문, 투옥을 피해 중국을 떠나 2019

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 망명 허가를 거부했다. 64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희망하며 한국에서 태국 방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비자가 만료된 후 현지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미국 정부, 유엔, 태국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교인들이 석방되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CP는 전했다.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마지막 날은 메이플라워 교회 가정은 출산으로 늦어져 5월 26일 댈러스에 도착했다고 한다.

교인들이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를 감독했던 차이나에이드(ChinaAid) CEO인 채드 볼러드(Chad Bullard)는 당시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재정착은 비관과적인 국제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 특히 라샤드 후세인 대사가 이끄는 국무부 국제종교사유국,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USCIRF, 마이크 맥

콜 위원장과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회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텍사스 기반의 기독교 단체인 '프리덤 시커 인터네셔널(Freedom Seekers International)'은 메이플라워 교회의 이적을 도왔다.

작년에 FSI는 중국인 교인들이 영어를 배우고 취업하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미들랜드 지역의 부동산에 정착하도록 도왔다고 보고했다.

이미경 기자

美복음주의 목회자 62% "스포츠 베팅,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대부분은 스포츠 베팅이 많은 주에서 합법화되었음에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보며 반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지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1천4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13%만이 스포츠 도박의 전국적인 합법화를 지지했으며 대다수인 55%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타 맥도널 전무이사는 "스포츠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은 스포츠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황폐를 원한다"라며 "대부분의 목사들은 스포츠 베팅의 도덕적 위험을 보고 미국 사회가 스포츠 베팅 없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종교적 논쟁이 목회적 반대의 핵심을 형성하며, 복음주의 목회자(62%)가 주류 교단 목회자(50%)보다 스포츠 도박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침례교(65%)와 초교파 목회자(63%)는 루터교(42%)나 장로교/개혁교회(46%)보다 이것이 틀렸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남침례회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 부회장이자 사무총장인 마일스 멀린(Miles Mullin) 목사는 "도박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비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성경은 신중한 재정을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도박이 악화시킬 수 있는 죄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도박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일과 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은 도박이 현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라며 "성경은 죄가 참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특히 중독성 행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도박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Pixabay

이 연구에서 젊은 목회자와 흑인 목회자가 나이 많은 목회자와 백인 목회자보다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에 약간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세대적, 인종적 차이도 드러났다고 CP는 전했다.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목회자들도 서부 지역에 비해 합법화 노력에 더 저항적이었다.

앞서 201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대부분의 주에서 상업적 스포츠 베팅을 사실상 금지했던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을 뒤집었다.

그 이후로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CP에 게재한 칼럼에서 마크 크리치 목사는 "도박은 '행운의 여신'이라는 신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태를 제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는 돈과 탐심에 대한 헌신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치 목사는 "개인을 심리적, 재정적으로 노예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서 자원을 빼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는 문화를 조성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도박으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경고했다.

2022년 CP에 게재된 칼럼에서 남침례회(SBC)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 전 회장인 리차드 랜드 박사는 중독, 이혼, 알코올 중독, 재정적 어려움 등 관련 사회 문제와 같은 도박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영화 '선택받은 자' 시즌4 개봉하자마자 美박스오피스 2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 '선택받은 자(The Chosen)' 시즌4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극장 개봉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유니버설 픽처스/애플오리지널 필름이 공동으로 제작한 아가일(Argyle)이 1위를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프로(Box Office Pro)에 따르면, 예수와 제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이 영화는 주말에 2천3백개 극장에서 6,035,823달러(약 80억원)를 벌어들였다.

현재까지 '선택받은 자'는 5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첫 시즌 이후 1억 8백만 명이상의 관객을 확보했다. 시즌4의 에피소드 1-3은 2월 1일 개봉했으며, 에피소드 4-6은 2월 15일, 에피소드 7-8은 2월 29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댈러스 젠킨스(Dallas Jenkins)가 감독하고 라이온스게이트(Lionsgate)가 배급한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을 다룬 최초의 멀티 시즌 영화다.

1세기 갈릴리아와 유대를 배경으로 한 이 시리즈에는 조나단 루미(Jonathan Roumie), 샤하르 아이작(Shahar Isaac), 파라스 파텔(Paras Patel), 엘리자베스 타비쉬(Elizabeth Tabish) 등이 출연한다.

'선택받은 자'의 이전 시즌들이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포함해 그의 사역 초기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시즌4는 하나님의 아들이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향해 전개된다.

배우 루미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시즌 중 가장 강렬하고 성숙하며 도전적"이라며 "나쁜 나라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그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이 꽤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리즈의 제작자이자 감독, 공동작가인 젠킨스는 지난해 시즌 3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와 마지막 에피소드를 극장에서 출시했다. 그러나 팬들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물려들자 해당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젠킨스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서를 깊이 파고들었다. 첫째, 나는 쇼를 만들고 있었다. 정확하게 해야 했다. 둘째, 이것은 내게도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지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쇼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복



©Lionsgate

음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든지, 치유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아셨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래서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하면서도 그 점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특집 '선택받은 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메신저들과 또 다른 영화 '선택받은 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록한 밤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미경 기자

백악관 "인도태평양서 많은 진전... 한미일 삼각동맹 격상"

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맹 강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2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 한일 정상상을 초청해 각국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3국 협력

을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지켜보는 역량을 추가했다"면서 "물론 역대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 등 3국 협력체인 오키스(AUKUS), 여기에 일본을 더한 쿼드(QUAD),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도 인태 전략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11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미 NSC는 지난 9일 인태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치에 세계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기자회견 최후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작전에 나선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윤희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캠기협)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 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내부 우려 증폭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서 창당 기자회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복귀가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선을 그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고히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당 창당과 함께 총선 출마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신당 창당

의 필요성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신당 창당은 이미 예상된 바였으며, 조 전 장관이 이끄는 '리셋코리아 행동' 싱크탱크와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결정에 대해 이해를 표하며,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한 기본소득당과 협력하여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복귀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시스

가 나오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흐려질 가능성 때문이다. 당 관계자들은 조 전 장관과의 연대가 민주

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이끄는 신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당의 지역구 경쟁력과 비례정당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

적 위기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당의 목표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독재적인 운영을 종식시키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호소했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관련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창당 지연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새 위성정당 출범이 예정된 15일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제3대 4개 세력의 빅텐트 성공과 거대 양당의 총선 구도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행보를 지켜본 후 위성정당 구성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현역 의원 대신 원외 인

사들로 국민의 미래 지도부 구성이 예상된다.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장재원, 김용 의원 등은 차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창당 일정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논의 중임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조처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세력은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의 정치적 쟁점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가 수도권 등의 격전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과 긴밀한 협력 하에 공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이

는 지난 총선의 미려한 국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의힘의 의중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장 사무총장은 아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과의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선정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박용국 기자

제3지대 통합, 내부 갈등과 리더십 공백 속 총선 도전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치세력의 통합이 결국 성사됐으나, 이들의 단합된 전선 구축은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미 합당 발표 이후,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탈당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명확한 지역적 기반도, 차기 대선을 주도할 만한 유력 인물도 부재하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갈등과 공천 및 총선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분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3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투톱 체제' 하의 개혁신당은 첫 지도부 회의를 개최, 총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안 정치세력으로 포지셔닝하며, 양대 정당 주도의 현 정치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제3지대 통합은 실질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4개의 다양한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치 세력이 현실적 고려를 바탕으로 통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정치적 경로와 성향으로 인해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인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합당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통합 발표 후 지지자들 사이의 탈당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으며, 당내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차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치적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우려는 물론, 당의 정체성과 구성원 부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3지대 합당이 총선을 위한 일시적인 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적 기반과 유력 대권주자 부재는 이들이 직면한 주요 한계로 꼽히며, 이는 총선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통합은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 동력을 모색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으나, 내부 갈등과 정체성 확립, 리더십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박용국 기자

나얼, '건국전쟁' 포스터 올렸다가 악플 세례

보컬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 겸 솔로가수 나얼이 영화 '건국전쟁'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을 받았다.

나얼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와 성경책 사진을 게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굴복하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5:1)김제임스 흥정역"이라는 성경 구절도 덧붙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나얼은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SNS에 관련 인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근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건국전쟁' 관련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남기며 화제를 모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독교와도 인연이 깊다.

다만 친야(親野) 성향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나얼을 향해 "2짜(보수 지지자)이었나? 정 떨어진다"며 악플을 쏟아냈다. 반면 한 누리꾼은 "'건국전쟁'을 SNS에 올리면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나얼은 해당 게시물로 논란이 일자 인



보컬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 겸 솔로가수 나얼이 영화 '건국전쟁'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을 받았다. ©나얼 SNS

스타그램 댓글창을 달았다. 전재경 기자

트럼프,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 재차 지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NATO)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국가들이 충분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간의 평등한 분담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나토를 강화하고, 공정하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많은 돈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이 다시 이전과 같은 태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1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콘웨이어서 한 연설에서 나

토가 고장 난 상태였으며, 모든 국가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이어진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한 국가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나토 국가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백악관과 나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SINCE 1897

무좀, 이제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권순우
한국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통산 2회 우승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발가락 사이 무좀엔
바르지오 원스

손발톱 무좀엔
바르지오 네일라카

발가락 발바닥 모든 무좀엔
바르지오 모두크림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발가락 사이 무좀엔
바르지오 원스

손발톱 무좀엔
바르지오 네일라카

발가락 발바닥 모든 무좀엔
바르지오 모두크림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백현동 첫 유죄 판결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육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바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정착이었다”고 잘라 말

했다.

이러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도 높지 않아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

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정략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을 아시아디벨

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

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행수 옥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을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정략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의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현준 기자

정부, AI·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종합 정책 재설계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분야의 범부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수립하

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국민 생활 속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773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AI 및 디지털 분야의 유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 1000억 원의 정책 금융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신사업 및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AI 기술 리더십 확보와 함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선도 프로젝트에 400억 원을 투자하며,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전략도 개발할 계획

이다. 국민 생활 속 AI 활용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는 의료, 교육, 일상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7737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질

서 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AI 안전성,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AI 안전 연구소 신설 등을 통해 AI 발전의 신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규범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영국과 공동으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OECD 내 상설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별 AI 핵심 인프라 집중과 디지털 혁신지구 확대,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개편 등 국민 생활 곳곳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에 있다. 박용국 기자

정부, 대학생 학비 경감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계획 검토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 하위 50%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확대 계획은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며, 현재

는 소득 하위 8구간까지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확대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 당장에서 논의 중임을 언급하며, 곧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비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윤,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문제에 “지원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직원들에 주는 출산·육아 지원금에 적용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13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

가했다. 이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부영그룹 등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대 1억여 원의 출산·육아 지원금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뉴스를 접한 윤 대통령이 관련 세제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소리 기자

美북한인권특사, 12~22일 韓·日 방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열흘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 중에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12-22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유엔 COI 보고서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외교정책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을 만나 최근 입국한 탈북민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터너 특사는 한국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과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는 납치를 포함한 북한의

강제 실종 관행과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동시에 “터너 특사의 이번 방문은 북한 인권 증진, 폐쇄 국가(북한) 안에서 미검열 정보에 접근성 증대, 구체적 변화를 촉구하는 생존자 목소리 강화 등과 관련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명동 기자

‘전신마비’ 박위, 10년만 걷기 성공... ♥송지은에 “손잡고 걷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유튜브 바 박위(36)가 재활 로봇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걷는 데 성공했다. 박위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 일어난다”고 적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박위는 보행을 돕는 재활 로봇을 이용해

걷고 있는 모습이다. 로봇을 이용해 걷는 것에 성공한 박위는 환하게 미소지었다. 연인인 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34)은 “위캔두잇”이라고 박위를 응원했다. 그녀 자 박위는 “손잡고 같이 걷자”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꼭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위, 반드시 일어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박위와 송지은은 지난해 12월 열애를 고백했다. 박위는 구두자 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지난 2014년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신효령 기자

헌혈하는 당신이 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헌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자녀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훈육방법

이경희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상담학 학과장



센트럴 신학단상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부모의 역할은 자녀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청지기로서 부모양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훈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있다.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1) 정서적 학대, 2) 육체적 학대, 그리고 3) 성적 학대를 할 경우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는다. 법적으로 그 학대의 기준들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처벌에 관한 판단은, 즉 학대의 기준은 자녀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인 상처의 결과 등 다른 여러 피해의 정도를 보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필자가 오래전에 소셜워커로 일하면서 경험했다.

부모가 소리지르고,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이 많은 교육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부모들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들을 상습적으로 당한 한인 가정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크고 부모에 대한 증오감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필자도 오래전에 소셜워커로 일하면서 많이 경험하였다. 결국 법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특히 한인가정의 신체적인 처벌들)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며 증오의 감정을 키우게 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망가지게 됨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들을 상습적으로 가하는 학대는 피해야 한다.

오래전에 필자가 상담해주었던 한 한인가정의 사례이다. 한인 남중생 7학년 정도로 기억한다. 아이가 몇일동안을 가출해서 학교를 안가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소풍물 근처에서 배회하며 친구집을 돌아다녔다. 며칠 만에 부모와 학교의 노력으로 경찰을 동원해 아이를 소풍물 근처에서 발견했고, 학교에서 처벌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말하기

를 “자식에 대한 너무도 큰 각성으로 몇 일을 못먹고, 못자고 해서 체중이 10파운드 이상이 빠졌다”고 하면서 아이를 만나보고 안도하는 모습이였다. 그런데 이들은 교장선생님, social worker, 수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참석한 회의장에서 아버지를 본적도 안했다. 아버지는 아이를 달라고 말을 걸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자네자” 했을 때, 아버지를 향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Go to the hell.” 나중에 아이들과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이들을 지금까지 심하게 때렸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맞지만 했지만, 자라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졌다.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 아이들의 행동은 점점 어긋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때리는 아버지보다는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고, 위로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비행청소년들이 더 편하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은,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Consequence)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감당케 하는 것이다. 응분의 결과의 예로는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리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 해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학교 소셜워커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운, 훈육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자녀를 훈육할때 부모는 자녀의 Doing(잘못된 행동)과 Being(존재)을 구별해야 한다. 비록 지금 자녀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행동이지, 자녀의 존재는 역시 귀하고, 살 가치가 있고, 변함없이 소중한 자임을 부모도 기억하고 자녀에게도 인식시켜야 한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미국 고등학교 한 교감선생님의 Doing(잘못된 행동)과 Being(존재)을 구별했던 예화이다. 한 한인 여학생이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집을 나가서 몇일간 외박한 결과 학교성적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정학을 받게 되었다. 정학 결정을 내리는 회의장에서 교감선생님은 회의내내 조목조목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날카롭게 지



적하며 정학처분 결정을 설명한 후, 회의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은 돌아서 나가는 여학생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의 행동은 심각하게 잘못되었고 나는 그 행동은 아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아직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는 너를 사람으로서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2.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즉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의 응분의 결과의 예로는,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로 받는 그 고통이 힘들어서, 당사자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래전에 필자에게 상담받으러 왔던 한인 가정의 실제 상담사례이다.

소지품을 계속 잃어버리는 한인 여중생 엄마가 상담받으러 와서 필자에게 이야기 하기를, 딸은 자신의 소지품을 수시로 잃어버리고 잘 챙기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 옷이나 학용품, 악세서리등등 수많은 중요한 소지품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가 그 엄마에게 “그 딸이 매번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관해 물었을 때, 그 엄마는 “뭐 어떡해요? 할 수 없죠. 아이가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까, 소리 지르고 야단을 많이 치지만 결국 새것을, 그것도 어떨때는 더 최신품으로 사줄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얼마전에 또 새로 사줬던 자켓을 잃어버리고 와서 엄마는 화가 매우났지만,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학교 갈때 새 자켓이 없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Northface 가서 비싼 자켓을 새로 구입했었다”라고 답했다. 이럴 경우에는 딸이 받는 메시지는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좋은

물건을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네”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필자는 그 엄마에게 “물건을 잃어버리면 본인이 추위에 떨게 만들고 많은 불편과 고통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야, 그 다음에 자기 소지품을 어디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챙기게 되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음으로, 다음에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바로 사주지 않고, 많은 불편과 고통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다.

또 다른 실제 한인 가정 상담사례이다. 두 딸을 가진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두 딸을 고등학교에 매일 ride를 해줬다. 그런데 동생은 늘 늦게 일어나서 기다려 줘야 했다. 동생이 늦어지는 관계로 언니도 학교에 반반히 늦게 가게 되고 언니도 출근이 반반히 늦어졌다. 잔소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하고, 별별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었다. 엄마가 드디어 동생자녀에게 말했다. “아침에 늦으면 더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고 언니와 엄마는 먼저 차타고 출발할 것이니, 너는 학교에 걸어서 가라.” 어느날 언니가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언니만 태워서 학교를 갔다. 그리고는 동생이 전화했을 때 걸어서 학교가라고 했다. 그 날따라 날씨가 춥고, 바람 불고 흐리고, 아주 안좋았다. 그날 삼사십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투덜거리며 동생은 등교한 후,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앉아 있었다고 한다.

3. 이상에서 효과적인 훈육방법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Consequence)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감당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 해주고, 자녀

들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행동수정계약서(Behavioral Modification Contract)’ 작성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행동수정계약서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자녀랑 마주 앉아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의논한다.

b. 만약 이 행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먼저 부모가 생각하는 적당한 정도의 자녀가 감수해야 할 응분의 결과를 제안한다.

c. 자녀에게 이 부모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d. 자녀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정도의 응분의 결과를 표현하게 한다.

e. 부모와 자녀가 동의하는 적당한 정도의 응분의 결과를 타협한 후 합의한다.

f. 백지종이를 들고 와서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인한다.

행동 계약서 제일 윗부분에 “행동 계약서”라고 제목을 쓰고, 본문 부분에는 날짜, 문제의 행동과 습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한 다음, 만약 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합의한 응분의 결과를 자녀가 감수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록한다. 맨 아랫부분에는 부모와 자녀의 이름과 사인이 그날 날짜와 함께 들어간다. 똑같은 내용을 두장을 만들어, 한장은 부모가 보관하고 다른 한장은 자녀에게 준다. 이 후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할 경우, 부모는 더이상 언니와 엄마는 먼저 차타고 출발할 것이니, 너는 학교에 걸어서 가라.” 어느날 언니가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언니만 태워서 학교를 갔다. 그리고는 동생이 전화했을 때 걸어서 학교가라고 했다. 그 날따라 날씨가 춥고, 바람 불고 흐리고, 아주 안좋았다. 그날 삼사십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투덜거리며 동생은 등교한 후,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앉아 있었다고 한다.

2) 행동계약서에서 결정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는(consequence) 자녀들이 아무리 졸라도 한결같이, 끝까지 지켜져서 행해져야 한다.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자녀가 와서 계속 보치고 조르면,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자녀들에게 양보 해버리고, 자녀들은 응분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게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훈

육에 관한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진다.

3)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를 만들 때, 현실적이고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한인 가정의 실제 사례인데, 한인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가, 당시 5과목 다 모든 과목들을 C와 D를 받고 있는 아들 성적표를 살펴본 후, 아들에게 3주 후에 있을 학기말 시험을 잘 치루고 최종성적을 5과목 다 Straight As를 받으면 차를 사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차를 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동계약서 작성을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3주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허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계약서 작성은 의미가 없다.

4) Consequence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해, 엄마가 자녀를 지켜보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가,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에 집에 없으면서, 자녀가 컴퓨터 사용하는 특권을 빼앗을 경우 엄마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런 응분의 결과는 무의미하다.

5) 자녀의 훈육시에도 부모가 한 목록리를 내어야만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3개의 귀걸이를 하고 싶다고 귀를 뚫어달라고 할때, 어머니는 반대를 하고 아버지는 아이가 원하는대로 해주자고 할때, 효과적인 훈육은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청지기로서 부모양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 속에서 더 힘든 생존경쟁을 치러내야 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 자녀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도 되시고, 아울러 훈육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자녀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저자 이경희 교수(M.Div., M.S.W., L.C.S.W.)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도미한 후 미국 위스칸신주 메디슨에 소재한 위스칸신주립대에서 Social Work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에서 상담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상담학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밸,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진척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습지공원 등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물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858-9800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주택 **모공역실업** 시공 **현대건설** 시행/주택 **미래개발2**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주문을 생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공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바람직한 기독교적 대응은?



조동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포스트휴먼 시대(下)

◆첫째 기계론적·환원론적 관점의 인체관의 한계

창조 신앙으로 보면 건강하던 병약하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과 인체를 우연한 기계적 시스템으로 보며 환원론적으로 봄으로써 각론적 이해에는 접근하였으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런 세속 의학은 일반적 진단법과 수술 테크닉, 투약법 등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에 성경적 건강학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인간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전인적이다. 필자는 군 생활 중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는 불치에 가까운 난치병을 얻어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한 덕분(?)이었던 지 의학적 치료는 갈수록 몸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약을 먹을수록 몸은 쇠약해졌고 가슴의 통증으로 과속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놀랍게도 이 불치에 가까운 난치병은 의사가 경고하던 금식과 기도로 완전 치유가 되었다. 안수 등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은 하나님의 신유였다. 신유를 체험한 이후 지난 수십여년 간 필자는 류마치스 약을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극심한 통증은 류마치스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기가 쉽지 않다. 오직 류마치스 환자들만이 서로 그 고통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증세와 통증은 모두 함께 출연하여 사라졌다.

치유 의학은 분명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참 이상하다. 그렇게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 숫자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이다. 기계론적 환원론적 치료도 분명 필요하나 인체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경적 건강론이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반면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초한 치유법은 모든 치료를 결국 운명론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기계적, 환원적 건강론이 아닌 통합적 차원의 성경적 전인 치유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건강론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성찰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약함의 유익에 대한 관과

인간이 영생하지 않는 이상 육체적 치유만이 삶의 전부 아니다. 건강이 분명 하나님께 선한 뜻이기는 하나 그것은 결국 작은 유익에 불과하다. 아무리 평소 건강해도 인간은 결국 언젠가 늙어 병들거나 사고로 죽기 마련이요(히 9:27) 약함에도 일정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고통과 약함 가운데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 건강할 때는 잘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은 배우고, 약함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것이 선하나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은 작은 유익일 뿐이다. 그러나 세속 의학은 본질상 인체의 신학적, 신앙적, 철학적 의미에는 별 관

심이 없다. 다양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리드 뇌 임플란트 기술 방법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 경제적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의 세속적 치료법의 발전

무슨 거창한 인류 변형을 위해 기약 없는 연구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하이브리드 기술 의학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피드 백을 거치며 결국 머스크 등 연구의 선두 주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선물할 수도 있다.

세속 의학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치료법이 점점 더 고도화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현대 의학은 경제적 유익을 위한 쪽으로 발달 되어 왔다.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물과 음식이 많은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면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겠는가. 그러므로 건강 진단법과 치유 방법은 고도화 되어 왔으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의학이 너무 전문 영역이라 대중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피동적으로 현대 의학에 의지할 뿐이다.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에게 외면받은 탁월하고 값싼 약품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뇌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술 의학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넷째 현대 의학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 - 의사들도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

한때 건국대 흉부외과 송모 교수의 독창적 심장 수술법(일명 '카바'라고 불리는 '심장판막성형술')에 대해 노벨상에 이를 만한 명의를 시술법이라는 여론의 극찬이 있었다. 여기에 관련 서울대 교수와 한국보건과학연구원(원장 서울대 의대 중앙 내과 허모 교수) 중심으로 이 수술

법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에 수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정반대 의견이 충돌하였다.

척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수술 문제에 있어 수술을 권유하는 척추전문 우리 들병원측(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서 수술)과 '우리를 병원은 의학적으로 볼 때 과도할 정도로 불필요한 수술이 많다고 반박한 서울대 출신 신경외과 의사들 사이의 논쟁은 현대 의학 안에도 여전히 경제 문제와 의학적 치료법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만만찮게 도사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리디스크로 한 발짝 걷기도 힘들었던 필자도 자연 치유 후 입대하여 모든 힘든 훈련 생활을 마쳤다. 수술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되는 척추질환을 혹시 과잉 수술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다섯째 과잉 진료의 폐단

치료를 급급한 환자들은 진정한 진료와 과잉 진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듯이 의사도 고의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거나 환자를 참출할 수 있는 작업이다. 여기에도 경제적 유익을 위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의 과잉 진료나 철저하게 환원론적 기계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의사의 과잉 의뢰로 폐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저선량(低線量) 컴퓨터 단층 촬영(LDCT)' 검사를 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양성률(암이 아닌 데도 암 같이 보이는 비율)에 대한 한 보고의 경우 LDCT 검사를 거쳐 폐암이 의심돼 흉강경 또는 개흉 수술까지 실시한 사람의 18~28%가 폐암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있다.

침팬지 기계도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잘 모른다. 문제는 이런 '과잉 진단'이 불필요한 CT촬영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쓸데없는 내시경 검사, 항암제 투약과 수술,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체의 두뇌에 인공 칩을 이식하는 기술은 분명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까지 각오해야 한다.

◆핀란드 신드롬 패러독스

과거 핀란드 정부는 40대 초반의 관리직 공무원 1,200명을 정기검진과 함께 영양 상태, 운동, 금연, 금주 등 건강생활을 철저히 지키게 한 그룹(A)과 그렇지 않은 그룹(B)으로 나눠 15년간 비교, 관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심장혈관 질환, 고혈압, 암, 각종 사망률 등의 모든 항목에서 방치해 놓은 B그룹이 의학적 관리를 받은 A그룹보다 좋게 나왔던 것이다. 심지어는 와병 비판 사실물까지도 A그룹이 높았었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 신드롬(중후군)'이란 의학용어이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건강 이상 진단에 따른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린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각종 투약이나 시술에서 오는 부작용이 치료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계론적 의학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대 의학의 공과를 잘 분별하고 창조 신앙의 눈으로 참 헬륨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수년 전부터 양식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치유 운동이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 여겨진다.

뇌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는 시도는 분명 일정한 의학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화학적 DNA와 달리 뇌는 정보를 새로 습득하여 담고 어떤 것들은 스쳐 지나가듯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생각과 연상 가운데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단순한 기억만 아니라 거기에는 희로애락의 감정까지 동반되는

등 그 신비로움이 여전히 복잡 미묘하다. 빛이 신경 신호로 바뀌어 다채로운 색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음파가 전기화학적 신호로 바뀌어 음성의 미세함까지 듣고 판단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뉘앙스까지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뇌가 파괴된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알츠하이머의 신학이 등장해야 할 판이다. 단순한 생화학이나 신경과 전기전자적 설명으로 뇌를 통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알파고 바둑〉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세포도 갖추지 못한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한 코로나19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인류의 무능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류는 다시 포스트휴먼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독교 신학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절묘한 융합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의학은 분명 철학, 신학과 더불어 오래된 역사와 경륜이 있는 학문이다. 해군 입대를 앞두고 온몸이 처참할 정도로 아토피에 시달리던 아들을 이끌고 찾아간 어느 종합병원 피부과 선생님께서 간단한 검사 후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약하지 않고도 단시간에 거뜬히 치유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탄한 적이 있다. 입대 후 아들의 재발을 걱정하자 오히려 바닷바람이 치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원스런 격려에 감동한 적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의학자는 아니다. 화성에 인류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무모할 정도로 일종의 레토릭에 능한 사업가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적 아이디어로 능숙하게 활용하고 변환할 줄 아는 사업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왕좌왕하던 의사들과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보며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워지기는 한다. <끝>

교육자 아브라함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성경에서 교육 목회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 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표준새번역 창세기 18장 19절)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

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교육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여집니다.

그를 교육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당대에만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교육자로서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라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뱀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예루살렘! 예루살렘!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지난 1월 말, (2024년 신년하례 및 이스라엘의 밤) K-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한-이스라엘 친선 모임에 초대받았다. 거기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살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약 300여 명이 모였다. 순서는 약 3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한-이스라엘 협회 회장인 전 부총리가 환영사를 했고, 이스라엘 선교회장인 김진섭 박사의 환영사와 국회 한-이스라엘 친선 협회장인 조해진 의원의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축도 순서를 맡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후, 바울이 축도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무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영어로 축도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거기 모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또는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검은 모자에 긴 턱수염을 한 정통파 유대인이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인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만도 매년 미어터지도록 가곤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어느 독창자가 <거룩한 성>을 부르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부르는 성가곡은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한국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짝사랑하는 듯하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복음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은 과학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하나로 가고 있는 가장 든든한 우방 동맹국가이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 독립을 한 이유도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서로가 신뢰하는 국가이

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칼렌다>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칼렌다에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년도는 5784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자 역사였다.

유대인들은 멸망 당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Diaspora)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토라(Tora) 교육>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 각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일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 가운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과학, 언론으로 미국 주류 사회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두뇌가 명석하여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던 민족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든든한 지원과 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지원과 서방의 후원이 하마스 괴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역사의 미래는 잘 모르지만,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강대국에 둘러싸

여 항상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의 정교성은 대단했고 여러 번의 위기를 딛고 승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낮에 하마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엄청난 인명손실과 건물이 파괴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항상 안보가 불안했고, 북쪽 공산주의의 위협에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최초로 유학을 간 분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였다. 그는 히브리대학교에서 히브리어로 3년 만에 박사가 되었고, 한국에서 교육사업에 전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교육 모델을 우리나라에 심어주었다. 특히 미국에서 유대인 교육을 전문한 현용수 박사는 이스라엘 가정 교육 모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책을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토라(Tora) 교육을 오늘의 한국 교육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의 <성경적 국가관>과 <정치관>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하브루타식 논쟁>으로

보수적 논리를 펴기도 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피로감에 쌓여가고 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유대인 중에는 최근 이른바 <메시아니즘>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여러 해 전에 <메시아니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목사가 정통 유대인들의 테러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분이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우방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 <살롬>과 우리나라도 <안녕>을 말하지만 한 번도 안녕인 때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역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구원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1)

최치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114-118)

1. 다양한 구원의 의미

한 조사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조사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해 나름대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답변 가운데 구원의 의미를 그런대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채 10명도 안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대답은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을 증거하고 설명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과 화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추종하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고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엡 2:1-3)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도다"(12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19-23)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반드시 영혼 구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 그들을 빌립보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구원의 의미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알다시피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대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은 사형을 포함한 매우 중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벌이 무서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매달려 애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간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하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는 당장 자신이 받을 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간절히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 때에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

났습니다(눅 5:12-13). 이 나병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이 회복된 것은 가장 절실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눅 6:6-11).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목적 이외에도 일반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불행에서 구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패색이 짙어갈 즈음,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고 외쳤습니다.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유된 경우에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용례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편 선수의 주먹을 받고 링 바깥에 쓰러졌습니다. 이에 주심이 카운터를 세는데 막 었을 세려는 순간 종이 울려 카운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구원받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헬리어 동사의 용례를 다시 살펴봅니다. <계속>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세상의 구원'인가 '세상의 살림'인가

안승오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선교신학



다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上)

하르텐슈타인에 의해 주창되고 호켄다이크 등에 의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신학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지난 반세기의 선교신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개념이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하여 복음주의 진영은 초창기에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보쉬가 지적한대로 이 개념이 본래 주창되었던 때의 본래적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점은 합당하지만, 문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 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잔을 포함한 복음주의 진영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이프타운서약 1부 신앙고백 마지막 10장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이며, 이 장에서 케이프타운서약은 "세계 선교가 ...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깨어진 창조세계를 ... 새로운 창조세계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선교를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 선교 운동은 자칫 인권운동, 사회운동, 복지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축소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뜻은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장은 성경 특히 그 중에서도 해방과 인간화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로 손꼽히는 출애굽 사건의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도 있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근거하여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로잔운동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하나님의 선교 이해를 찾아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바라보는 하

하나님의 관심 이해 경향

1.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구원'이 아닌 '세상의 살림'이라고 보는 경향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세상 자체를 살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에큐메니칼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인 호켄다이크(J.C.Hoekendijk)에게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루시는 것은 살림이라고 보았는데, 그 살림은 개인 영혼 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의,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의 포괄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이 살림은 사회적 사건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근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살림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평화의 왕"(사 9:6),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미 5:5), "그가 ... 화평을 전할 것이요"(눅 9:10),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살림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지만 에큐메니칼 진영의 관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JPIC(Justic 정의, Peace 평화, Integrity of Creation 창조질서 보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위에서 그의 선교를 수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은 바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구원보다는 세상의 살림에 있다고 보는 경향 속에서 평화 문제와 창조질서 보존의 문제와 더불어 정의 문제가 에큐메니칼 선교의 핵심 목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살림을 이루는 방법은 전도보다는 구조적 해결로 보는 경향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을 개인의 구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전도를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한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살림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존 등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고 보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는 전도보다는 오히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구조적 해결의 활동이 더 주된 방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살림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이해는 죄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즉 죄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며, 이러한 죄의

해결은 구조적인 악에 속박 당하여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은 개인전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구조적 악을 향한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구조적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옅살라는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압제 받는 자들이 권리를 옹호하고 국내 및 국가 간에 경제정의가 확립되도록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밴쿠버도 "교회의 영적인 투쟁은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추방된 자들의 투쟁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은 투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JPIC 대화는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충분한 잠재력의 실현의 기회를 거부하는 모든 구조와 체제들에 저항할 것이다. 특히 고문, 실종, 탈법적 법집행, 그리고 사형 등에 저항할 것이다." 라고 결의하였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에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 잘못 이해하면 인권운동·사회운동 등으로 축소 왜곡돼 에큐메니칼 진영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 살림 이루는 방법, 전도 보다는 '구조적 해결 활동'을 더 주된 방법으로 인식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 지향하는 세상에 부가된 하나의 첨가물... 선교, 가난한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해 하나님 나라 엮어나가야" 주장

도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정의, 인간 존엄, 생명의 대의를 지키는 운동에 ...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한다.

아울러 살림을 강조하는 견지에서 보면 전도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기에 살림에 다소 방해가 되는 요소로 비칠 수 있다. 비체돔(Georg F. Vicedom)은 말하기를 "그러나 복음은 선포될 때 인간들 사이에는 장벽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특별한 생활 방식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전도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관점은 전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에큐메니칼 진영은 전도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칼 브라텐(Carl E. Braaten)이 말한 대로 "... 공식적인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고전적 의미 안에서의 전도에 대하여 립서비스를 한다. 즉 [에큐메니칼 진영은]전도를 거부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살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도에 포함시키는데, 예를 들면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는 "전도는 자기 비움의 겸손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또한 다른 문화들과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한 전도는 이러한 지형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들에 모순되는 억압과 비인간화와의 구조들과 문화들에 맞서

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전도보다 구조적 해결에 더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도마저도 비인간화된 구조에 맞서는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을 교회가 아닌 주변부 사람들로 보는 경향

전통적인 신학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또한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복음을 맡은 기관으로서 복음을 전할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개인들의 영혼 구원이기보다는 세상의 살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가 아닌 세상이며 세상의 살림을 위한 기구는 교회 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즉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교회는 이제 부수적인 위치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런 면을 에큐메니칼 진영은 "...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체 피조물과 교제하시는 데 필요한 도구요 성례전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이형기는 '탈(脫) 교회 중심적 교회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가난한 자, 약자, 억압받는 자 등을 다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는 주변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부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가난한 자들의 옹호자(마태 5: 3), '상처받기 쉬운 자들(산명기 24)과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마태 25: 31-46)' 이시기에 이들의 해방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해방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해방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 권력층은 해방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오히려 해방은 주변부 인생들로부터 시작될 일이며, 이런 점에서 산 안토니오는 "무엇보다도 그는(예수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병자들, 공개된 죄인들 및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른 선교란 ... 가난한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엮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도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주변에 있게 함으로써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다."라고 한다.

<계속>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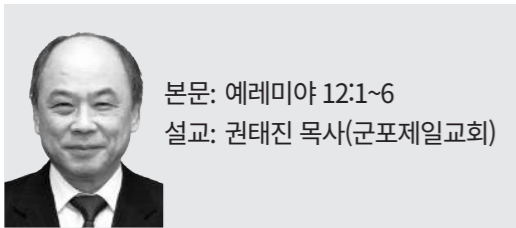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무슨 까닭이니까



본문: 예레미야 12:1-6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감사와 사랑과 행복은 신자의 호흡과 같습니다. 신앙 생활하다가 때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공의를 제할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렘9:23)

지혜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자의 부함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9:24)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뿌리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슬퍼했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을, 쇠기둥, 동성벽과 같이 아무도 점령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도 항상 예레미야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무슨 까닭이니까”(렘12:1)

이 질문은 육과 이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시73:1-5)

성경은 악인의 복기는 세상에서 끝나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떠나이다”(렘12:2)

악인을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

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간섭하십니다. 믿음 없이 형통케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때가 되어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갔으나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눅16:23-24)

부자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눅16:25)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고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심음으로 거두는 열매, 충성함으로 얻는 면류관, 고난과 헌신으로 오는 누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평안과 안정은 과거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입니다.

2.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떠나이다”(렘12:2b)

악인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정서, 지식이 말씀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교회 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마음과 정서가 신앙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괴로워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66)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56:8)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일을 감당함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의 대를 이어갔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얻고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바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렘12:3)

“너희는 악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렘5:6)

유다 백성은 출애굽하여 도착한 가나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며 타락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자연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3.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자연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이다”(렘12:4)

유대인의 죄로 인해 채소와 짐승과 새가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쫓겨났을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3:18a)

무신론자나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와 땅이 황폐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 생물이 사라집니다. 노아의 때, 인간의 범죄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짐승이 사라지고 공룡도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새와 짐승도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요즘은 풀벌레의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인간이 살지 못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최고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8:11)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없는 것이 양식과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양식과 물은 육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을 키우고 천국에서 누리게 합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 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렘12:6)

선지자로 세움 받은 사람은 가족 간에도 화목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칭찬만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이해와 인기를 얻으려 하면 점점 진리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영원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악인과 대적자의 평안을 부러워 말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시간 근로 OECD 평균으로 감소... “생산성 높여야”

주당 60시간 근무 비중 크게 줄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 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24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12.0%, 10.3%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58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공표 평균(10.2%)과 비교해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0.1%p(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했으며, 실근로시간 기준은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비중은 우리나라(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가 모두 OECD 평균(3.8%)보다 낮았다.

특히 2022년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 3.8%에 비해 오히려 각각 0.6%p, 1.1%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만에 주당 근로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50시간 이상 일했다.

그러나 2002-2022년 OECD 평균이 2.1%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15배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실근로시간 기준 2002년 35.6%p에서 2022년 1.8%p로,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30.3%p에서 0.1%p로 대폭 감소했다.

2002년 60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로 약 20%가량의 근로자가 해당했다. 그러나 2002-2022년 OECD 평균이 2.0%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8배 이상 크게 감소하며 2022년의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7%로 2002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국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기자

‘서울 사는 모든 산모’ 아이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새해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다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게 됐다. 다만 다른 사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만큼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에 1만5907명의 산모가 바우처 지원을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5만3296건에 달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 2023년 10월 15일 발간

최신작 NEW

저자: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장으로 믿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흘린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원순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설날 (쌀 국내산 100%) 떡국은 창대방앗간에서 준비하세요!



민수경 목사

- 흰떡국 1말 ~~7만원~~ → 5만5천원
- 현미떡국 1말 ~~8만원~~ → 6만5천원
- 오색떡국 1말 ~~8만원~~ → 6만5천원
- 흑미단호박시루떡 1말 10KG

~~14만원~~ → 10만5천원

▶ YouTube 창대방앗간

★방부제 및 색소가 전혀 첨가 되지 않았습니다.

★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땀 흘려 지은, 100% 국내산 농산물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 입금 : 농협 (예금주 : 민수경) 352-1977-6940-03

010-7143-7871

※ 떡 후원이사 - 7,000명 4개 국어 찬송가 부르기 선교회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7778@naver.com



복층 농막주택

왜관 온암 재가노인센터

대구 서재 어린이 수영장

대구 상가 4층건물 리모델링

약목제일교회 리모델링

전원주택

태전동 주택 리모델링

포항 카페 인테리어

대구 신성교회 리모델링

동해한옥

매매가 38억

연수원, 힐링센터, 기도원, 요양원, 한옥스테이카페 추천
-면적: 1,724㎡ (총6채)
-위치: 강원도특별자치 동해시청 앞

주인문의 010-4071-1011



등록 민간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2013-2407)

교회복지사 교육생모집

2024년 3월 개강

교육장소

서울_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종로5가역, 2번 출구)
대전_본회 교육센터 (서대전사거리역, 5번 출구)
통신과정은 계절학기에 출석수업

등록비 30만원

농협 355-0018-2184-03
(예금주; 한국교회복지사회)

한국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문의 www.cws95.net
전화문자문의 010-9643-6356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겉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주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충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흔 목사.
장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글로벌 비즈니스로 우물안 개구리 탈출 솔루션

우리나라를 세계1위로 만들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당입니다.

인생은 타이밍,

기회는 가치를 볼 줄 아는자의 것.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 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상부상조(WIN - WIN)

※투자 진행 시: 변호사 공증 및 배당 서류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

전화: 010-9897-2003

이메일: zhc2000@naver.com

(본 광고는 역사적으로 남을것임)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인의교회 당회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물증해결

국내최초 우물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 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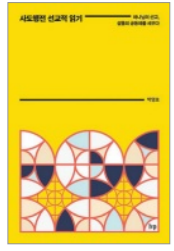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살롬의 공동체를 세우다

신간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적 읽기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성경 읽기 방식이지만, '선교'라는 개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쉽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많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교회다. 그렇다면 오히려 성경을 선교적이 아닌 방식으로 읽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성경 전체가 선교의 필요성을 말하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는 1세기 교회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고루 들여다보며 사도행전 본문을 '선교적 읽기' 방식으로 읽는 모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도록 안내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에 눈을 뜨게 하고, 창조와 본질을 회복한 살롬의 공동체로서 오늘의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선교가 교회보다 크다. 교회의 선교에서는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고 가시며, 교회를 사용하신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제안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자각하는 도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신구약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 가는 것이다"고 했다.

또 "승천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의 회복을 향해 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 역사적 안목은 우리의 조급증을 치유하고 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 준다. 이 역사를 제

로 읽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향할 곳을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도 크게는 복음 이야기의 일부, 혹은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룬 분임나대를 알려 준 뒤, 오래전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흠여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흠여집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 자신들을 세계 곳곳에 흠여신 것이라고 이해했다"며 "우리가 '살롬'을 말하면서 먹고사는 문제, 정치적 억압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 인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중독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산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

신간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의 저자 한상수 목사(인천영광교회 담임)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참된 신의 존재란 무엇인지 논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 성경적으로 밝히고 평신도들이 올바른 성경 지식을 토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까? 하늘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간혹 이런 생각들이 머뭇머뭇 떠난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우주의 만물과 인간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들조차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 세계를 살펴본다면 실존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주 공간에는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도 있지만,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물들도 수없이 존재한다. 특별히 영적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 천사장,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도 사실은 인간의 육과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계셨기 때문에 베일에 싸인 신비이며, 비밀이었다. 그 감춰져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실재를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다. 만일 창조 사건이 없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실재와 존재는 영원 속에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인간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자칫 인간의 이혼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에 대해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이제, 모든 멩에를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책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2(중앙북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를 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에 끝난 지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광역시 달성 사저로 내려 오기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이야기가 펼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 회고록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까닭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헌정사에 탄핵으로 퇴임한 대

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의무감이 그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19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야기로 시작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사건' 여파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총선을 턱 앞 앞두고 위기에 빠진 당을 추스른 그는 패배가 유력했던 2012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과반을 넘는 152석을 얻으며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긴 수감 기간

인 4년 9개월여를 구치소에서 보냈다. 그간 세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에 수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난무했으나,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수감 생활 중 약화되었던 그의 건강 상태나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 큰 국어사전을 짊어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일상에 대해서도 담담히 고백한다.

특별 사면이 있기 전까지 2039년까지의 긴 형기를 생각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 것은 국민들의 위로 편지였다고도 전한다.

이 책은 중앙일보가 기획해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대중 앵글러스에서 기사로 연재된 글을 재구성하여 출간됐다. 책 속 부록에는 정치계 입문 이후부터 미공개 사진과 2013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일지를 수록해 그의 정치 일대기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수지 기자

2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음 번에 믿지요" 하면서 미룹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인류 종말에 관한 이러한 계시를 받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뛰어난 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에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라원기 '예수님의 가상철학'



매일의 예배를 통해 나를 한결금 한결금 인도하시며, 주의 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행복하고 존귀한 사역을 오늘도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가! 오늘도 예배 속에서 나는 결단한다.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좁은 길을 행복하게 달려가리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해결점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나의 완악함과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내 안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내 영육 간의 병은 급속도로 치료되었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었다.

이순희 '보라! 행복한 주의 종들'



구약 성경은 교회에 중요하지만,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 페이지마다 우리는 폭력적인 이야기, 이상해 보이는 율법, 왕이나 지리적 구역의 목록, 전혀 뜻밖의 환상과 상징을 읽는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에게 신지서는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늘날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신지서가 어려운 이유 중 몇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구약의 신지서는 독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우리에게 종종 어렵다. 신지서는 우리가 이런 신학적 맥락을 이해한다고 가정한다. 신지서들의 윤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셨으나 그들은 (늘 그렇듯이)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예언의 메시지 대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이런 신학적 언급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에릭 달리 '기독교 성경으로서의 신지서 개론'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영 목사 (양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1)

엨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시리라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중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를 번뇌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모습,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구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나 하는 착각이 들어오고 자주 번뇌에 빠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착각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중생에 관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라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성화에 관한 것,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거듭남, 정의가 되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다시 산 세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하고 새롭게 입어야 할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야 합니까? 바로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에서 와



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확실한 표시가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는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자주 이전 날에 삶

을 반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작년 저에게 왔던 절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왜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일까? 견신하고 생일을 맞이하면 가장 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첫 1년, 2년, 3년에는 할 말이 많다가 나중에는 할 말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10년 넘으면 견신 생일 맞이하는 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비단 저만의 번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번뇌만 바로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 옛 구습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홍수 심판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옷을

벗고 벌거벗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함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벌거벗은 노아의 몸을 덮습니다. 그 리고 노아는 깨어서 아들 함이 한 행동을 보고 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또 벌거벗은 자신을 덮어주었던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지도자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사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흰옷이란 성도들의 좋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해 그가 이전 날의 행실을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에 힘썼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경황히 여겼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새 하늘, 새 땅에서 중요한 것만 바로 성화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경황히 여길 수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성화가 없다면 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22-24절까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엨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와 탐욕의 세상 속에서 찌들어버린 죄악 된 나, 죄악을 따라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발 빠른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죄악 된 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고 이제 썩어 지독한 냄새까지 나는 시체를 되었는데 혹 우리가 그 냄새 나는 시체를 버리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 간직하고 있던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에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래전 방송에서 실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의지하고 사랑해서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시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 다름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서광교회 제공

나의 사랑하는 책

힘은 바르게 쓰여져야 합니다

| | | | | | |
|--------------------------------------------------|------------------------------------------------------|------------------------------------------------------|------------------------------------------------------------------|----------------------------------------------------------------------|------------------------------------------------------------------------|
| 권력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가 봅니다. | 너무 많은 권력을 소유한 나머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 그는 수차례에 걸쳐서 다윗 왕의 말에 불순종하였고 왕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 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힘.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또한 그것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맡기신 이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며 |
| 권력의 힘을 빌려서 불의의 것으로 치부하거나 힘의 오용과 남용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 | 다윗의 피란만장한 생애에 데 수많은 공격을 세우고 사람들의 신임도 얻은 다윗의 심복이었습니다. | 왕의 뜻을 묵살하고 임의대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기회를 따라 불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 여호와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르다(삼하 3:39) | 삶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 없듯이 |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힘은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기대와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하루입니다. |
| 마치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부어서 넘치는 것처럼 마음과 인격의 그릇에 비해 | 하지만 그 역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기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 오죽하면 다윗이 그를 저주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을까요. | 리더를 보좌하는 이가 자신에게 모자란 힘을 이용해서 리더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야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 그러므로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하게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모든 종류의 힘이 그러하겠지요. 창골산 복음사 |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정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혼화에서 열매지는 마목(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木)의 마(麻)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리 왔으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이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풍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세이 없어 발전하지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들은 그 장수를 논 여가 바 부었다가 매달 새를 뿌리 놓았다가 지만 매달을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색에는 이미 돌아가지 않고 꽃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뿌리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진(赤筋)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천마나 뿌리에 벗겨져서 중금속이 들어 있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알,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가시된 내용을 살펴보자.

(홍천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열이 서로 충돌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아파보고 속이 멎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각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장의 열을 내리고 비염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훌륭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건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니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중풍·고혈압·당뇨·만성두통·우울증·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회개와 후회는 사람 속 영원에 속해 있다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5) 11시

두 명의 안내자는 사람을 일찍 그리고 늦게 부른다. 나그네가 길을 걸을 때 그가 올바른 길을 걷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과 뒤를 돌아보듯,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과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후회와 회개다. 후회는 일찍 뒤에서 부르고 회개는 앞에서 늦게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후회가 사람을 부를 때, 후회는 언제나 늦다. 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다시 길을 찾는 부름은 언제나 11시다(마 20:6).

당신이 젊었던 늙었든, 많이 범죄했던 조금 범죄했던, 법을 많이 위반했던 많은 일을 방치했던, 죄책감은 이 모든 것들을 11시의 부름으로 만들어 버린다. 후회가 마음의 내적인 동요를 날카롭게 하는 바, 지금 11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1

시는 성경의 비유에서 인용한 말이지만 하나, 이 세상에서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늙은 나이가 11시이고 죽음의 순간은 11시의 마지막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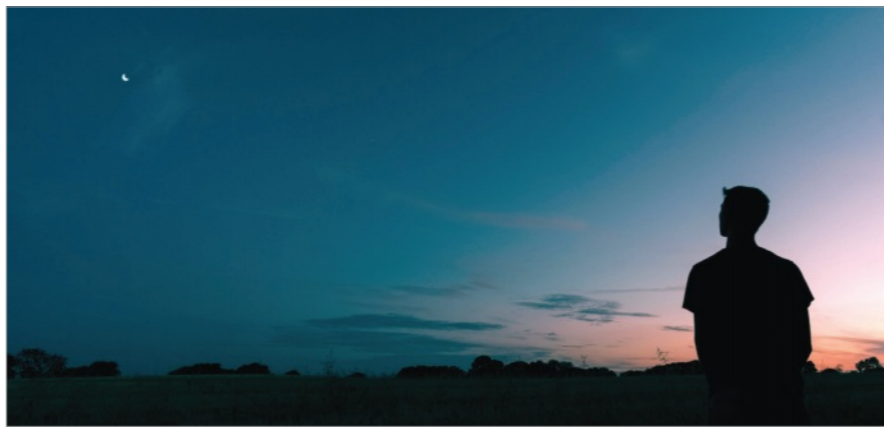
게으른 젊은이는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긴 인생에 대하여 말한다. 나태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사람 속에 있는 영원에 속해 있다.

회개가 죄책감을 이해할 때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11시에 있다고 이해한다. 인간적인 나태가 잘 알고 있는 저 시간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올 것이다.

그러나 저 시간을 개인적으로 나태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늙은 사람조차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으니까. 나태한 젊은이는 11시에 가깝다는 것은 나이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바보가 되니까.

보라, 두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필요한가!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기를 바라는 가볍게 무장한 젊은이의 소원이든, 인생



을 싸우며 나가고 싶어 하는 남자다운 결심이든, 그들은 둘 다 자기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 '긴 시간'을 생각한다.

한 평생의 시간에 기대하고 있거나, 적어도 분투하기 위한 계획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이유이며,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이 착각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간 다루는 법을 안다. 후회가 걱정을 일깨울 때, 깨우는 것은 언제나 11시다. 후회는 자기 마음대로 다를 수 있

는 시간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후회는 11시에 있으니까.

후회는 인생의 긴 시간이 있다는 잘못된 개념으로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회는 11에 있으니까. 사람은 정초의 시기이든, 어른의 바쁜 시기이든, 노인의 최후의 순간이든, 사람은 11시에 인생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다.

그 날에 어느 다른 시간에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회개할 뿐이다. 진정성이 없다. 그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죄책감에 대한 피상적이고 잘못된 개념으

로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킨다. 그는 인생의 길이에 대한 기만적이고 분주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킨다. 그런 사람의 후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없다. 진정성이 없고 삶이 가볍고 경솔하다.

오, 11시여, 당신이 현존할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뀌는가. 한 밤중의 시간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은 얼마나 진지한가.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독한가.

영원 속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엄숙한가.

오, 이 노동의 고된 시간이며(노동을 쉴 때라도),

결산을 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가에는 고소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 각각의 이름이 불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가에는 부른 사람이 없다.

무익한 모든 말이 영원의 변화 속에 반 복되어야 할 때다(마 2:36-37)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 이 얼마나 값비싼 흥정인가!

그때, 그 11시에, 무책임한 사람, 바쁜 사람, 게으른 사람, 자랑스럽게 분투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급한 열정을 가진 사람, 대중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눈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후회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다니!

오, 11시여, 당신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죽음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 해도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는가!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영적 무감각의 병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49)



권혁승 박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고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시대에 따라 질병의 종류도 변하고 다양해진다. 성서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문둥병이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면서도 전염성이 높아 급속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이 병의 특

징은 감각기능을 마비시켜 자각증세를 잃는 것이다. 감각을 상실하면,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감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감각은 범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 기본 감각이 있다.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감각은 정보일 것이다. 군대의 감각으로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레이더 통신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개인과 사회 모두가 방향과 의미를 상실하여 끝마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시야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9)

무더어진 영적 감각기능을 되찾는 일이

우리 모두가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본문은 영적 무감각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방탕함이다. 방탕함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크라이팔레’는 현기증과 같은 어려움을 의미한다. 중심을 잃음으로 생기는 불균형과 무절제가 방탕함이다. 지나친 사치와 낭비, 과시적 소비 등은 생활의 건전함을 해치는 어려움 증상이다. 이런 무절제가 타락한 사회 흐름과 겹치면, 헤어나기 어려운 방탕으로 쓸려내려간다.

둘째는, 술 취함이다. 술을 즐기는 이유는 정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다. 그 결과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는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다. 그런 술 취함은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폐가 된다.

셋째는, 생활의 염려이다. 살다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다. 문제는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이다(마 6:32).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마 6:33). 염려는 가시물질과 같아서

뿌려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영적 장애물이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영적 피곤감과 무력감을 가져온다(사 40:27-31). 영적 무감각의 주범 중 하나는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이다.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본문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무감각의 질병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일정기간 잠복하였다가 뜻처럼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평생시 자신을 살피는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기도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내적 성찰과 함께 외부에서 몰려오는 도전과 위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늘 깨어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의 창문을 열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아야 한다.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을 무서운 죄로 여긴 것이 그 때문이다(삼상

12:23).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쉽

이 지속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영

적 일상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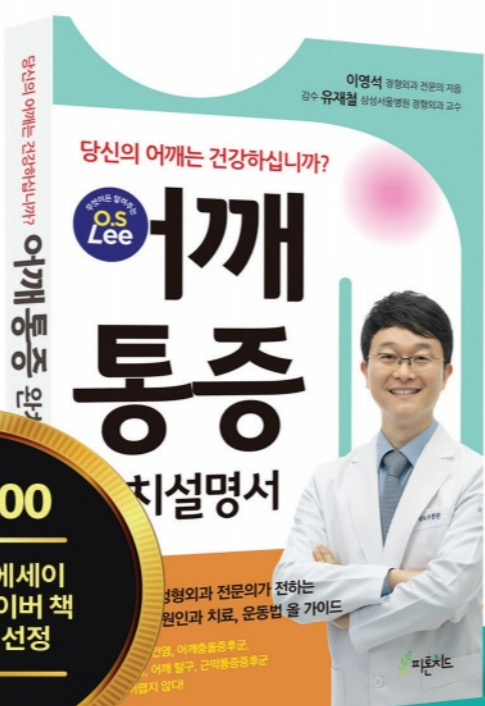
은혜 한 장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18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장편소설 바다는 알고 있다 (23)

요즘엔 퇴각하는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밤낮없이 유엔군의 폭격기가 살상의 불을 뿜는 세상이건만, 과수원의 복숭아나무엔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수밀도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고 사과나무엔 연록색의 색연필로 칠한 것 같은 푸른 사과가 눈 시리게 달려 있었다.

새빨간 고추잡자리와 된장잡자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 난 원무를 추고, 미루나무의 우듬지마다 엔 동지를 뜯 끼쳐들이 새끼들에게 연신 모이를 물어다 주느라 깹깹대며 힘찬 날갯짓을 한다.

머리에 해 가리게 세수수건을 쓴 아주머니들이 쥔 손으로 익은 복숭아를 따고 있었다. 신애는 일서와 원두막으로 올라가 새 지푸라기 냄새가 후각으로 스미는 명석 위에 피곤한 다리를 뻗고 앉았다. 명석에 놓인 밑짚 부채를 부치며 일서는 심각한 어조로 토하였다.

너한테 말하는 건데, 난 정말 다는 못 견뎌. 학교에 다녀야지. 지게 지고 밥 세끼 벌어먹으려고 죽을 등, 살 등 그 무시무시한 38선을 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일서 오빠, 내 교과서로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조각 공부 해 가지고 뭐가 되겠냐? 난, 광활한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돈에 미친 어머니 밑에서 뭘 어떻게 더 참겠느냐 말이지?

그날, 일서는 과수원 지기 아주머니가 감자 넣고 끓인 옥수수 가루 수제비를 두 그릇이나 먹고 무거운 복숭아 소쿠리를 들어다 주었다. 우물에서 세수하고 난 그가 잇는 말이 생각나 듯 정색을 하였다.

신애야, 너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 난, 알지--?

일서 오빠, 아냐, 아냐!
신애는 향의하듯이 고결 저였었다. 퇴

각하는 인민군을 따라 평양을 향해 떠난 일서.

그 영민하고 불행한 일서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매일 늦장 마비가 내렸다.

서울이 수복되고 폭격이 잠잠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연일 비가 내린다. 신애는 험기증을 누르며 우비를 입고 장화를 쟁겨 신고 빗속으로 나갔다.

용미가 종태라니, 용미는 대치승의 딸이고 신애보다 한 살 위인 숙성하고 다부진 짝꿍이었다. 농과대학 부근에 사는 경희가 어지께 와서 용미의 음독 소식을 알려 주었다.

고작 여중 3년생이 양젓물을--?

전쟁으로 휴교한 지 몇 개월 사이에 무엇이 사춘기 소녀에게 독을 마시게 했단 말인가, 신애는 발걸음을 빨리하였다.

사거리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가마니를 덮어놓은 시체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대비 속에 우산들을 쓰고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낙오된 인민군의 시체는 여러 구였다.

가마니 밖으로 나온 한 시체의 손은 빗물에 불어 고무 제품처럼 퉁퉁 부풀어 있고, 한쪽 군화가 벗겨진 시체의 발은 뼈저러운 발가락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끔찍했다.

전쟁의 잔악함에 어른들은 끝끝 허를 차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동벌거숭이 아이들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없이 시체 구경에 몰두해 있었다. 신기한 물건 구경하듯 눈빛을 푹푹톡톡 빛내며 시체를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신애는 열린 발걸음을 돌리었다.

일서는 어떻게--? 흑시 저렇게--?

부디 연합군이 승리하여 학교열에 불타는 그가 다시 돌아와 우주과학자의 꿈을 성취하기를, 신애는 짧은 순간 간절히 기원하였다.



우비를 입었어도 바바람은 사정없이 치마를 적시고 우산대를 부러뜨릴 것처럼 세차게 몰아쳤다. 오한을 견디며 신애는 빗속을 걸어갔다.

용미가 음독을--? 왜--?

신애로서는 새까만 수수께끼일 따름이었다.

용미를 마지막 본 것은 전쟁이 발발하고 두 달쯤 되었을 즈음이었다.

전쟁 전에도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그녀는 사과 빛 뺨이 되어 시내에 있는 신애네 집에 놀러 오곤 했었다. 그러나 그날의 용미는 먼 길을 걸었는데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 밑과 왼쪽 뺨에 시퍼렇게 멍 자국이 나 있었다. 신애를 보자 용미는 대뜸 울음부터 터뜨렸다.

스님인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했고, 절 근처에 주둔한 부대의 군인과 소나무 숲에서 연애를 하다가 들켰다고 흐느꼈었다.

연애를 하다니--?
충격을 받은 건 신애 쪽이었다.

더구나 상대가 학생이 아닌, 군인이란 말에 신애의 당혹감은 극대화되었다. 용미는 손등으로 눈물을 흘려내며 꺾꺾 목련 소리로 떠들거렸다.

나, 그 군인 따라갈 거야. 부대가 금방 이동한다.

용미는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신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뭐라고 말해 줄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의 부대가 떠나면 잊게 될 것이다. 전쟁이 잠잠해지면 공부에 매달려야 하고, 진학하고 대학에도 가야지 하고, 신애는 절대로 용미의 귓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말을 열심히 충고해 줄 수밖에 없었다.

비를 맞고 온 신애를 본 용미 어머니는 반가움과 슬픔이 뺨 얼굴로 신애의 손을 부여잡고 용미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용미는 시체 같은 몰골로 누워 있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사춘기 소녀가 첫사랑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단으로 양

젓물을 삼키다니--?

전시라 도립병원은 의사도 약품도 귀하고 부상병들로 꽉 차서 병상이 있을 리 없다고 했다. 사흘에 한 번씩 용미는 먼도립병원으로 리어카에 실려 통원 치료를 하러 다닌다고 했다.

양젓물이 얼마나 독한지 입에 넣자마자 뱉었는데도 그녀의 목구멍은 양은 것 가락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오그라 들었던 것이다.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겨우 모기 소리만 했다. 뭐라고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귀를 바짝 갖다 대어도 소용이 없었다.

막지 못한 몸은 쇠잔할 대로 쇠잔하여 무서운 몰골이었다. 누운 채 용미는 잠기장이다. 그림 그리듯이 썼다.

미안해, 합창 연습할 때, 네가 향숙이와 더 친하다고 오해했던 거,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신애야, 나 죽지 않을 거야. 꼭 그 군인 따라갈 거야. 그 사람 이름 강철수야. 너네 집 주소를 가르쳐주었어. 편지 오면

나한테 갖다줘. 너는 진짜 내 친구야--응?

그래그래 알았어 편지 오면 금방 가지고 뛰어올게, 약속할게.

용미를 안심시키기 위해 신애는 생선 가시같이 앙상한 용미의 손을 끌어다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었다. 용미의 양쪽 눈에선 방울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거짓말처럼 불속 신애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솟았다. 한동안 그렇게 두 소녀는 말없이 창호지 문밖의 빗소리만이 적막하게 들리는 방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개미가 거어가는 것 같은 형상으로 쓴 용미의 글씨를 볼 적마다, 신애는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곤 했다. 그 글은 도저히 무엇으로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는 없는,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산 용미의 마지막 유서가 된 때문이었다.

사흘 후에 신애가 다시 갔을 때, 이미 용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신애가 다녀간 다음 날 새벽에 용미의 숨이 끊겼다고 젊은 용미 어머니는 흰 행주치마로 얼굴을 덮고 오래도록 흐느꼈었다.

살겠다고, 죽지 않고, 그 군인 따라가겠다고 굳센 의지를 토하던 용미는 신애에게 편지 부탁을 하고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생을 놓았던 것이다. 용미의 포화 속의 어린 사람은 신애의 잠을 앗아갔다. 존재의 상실감은 나약한 신애의 정신에 한없는 허무의 생체기로 남아 아물 줄 몰랐다. <계속>

◆ 김병희 작가
(현대문학)으로 등단, 한국소설문학상·조현문학상·만우문학상·PEN문학상 등 수상, 단편소설집 <고독한 축제> 등, 장편소설 <에덴의 강> 외 다수

은혜의 샘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니 더욱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글을 돌

리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니 더욱더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을 대는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린 글 가운데에

는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기 때문이겠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름을 밝힐 때 보다 더 자유롭게 자기 뜻을 알릴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이름을 밝히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겠습니까?

당당히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떳떳하지 않다고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용기를내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박동현 교수(정로회 신학대 구약학)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율법 생활의 갈증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갈증을 호소했다. 애굽을 벗어나 처음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 이전에만 두 번의 갈증을 호소한다. 상황으로 보면 광막한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 상황인 만큼 그들의 호소를 불순종이라고 일갈하긴 쉽지 않다.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우리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명해야 한다.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애굽을 떠나자 바로 갈증을 호소했던 마라(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하시면서, 당신의 행사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는 불만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다. 그리고 다시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윗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반석을 치니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다

투다'는 의미의 '맛사' 혹은 '트리바라 불렀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소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는 식의 조명이 그것이다. 그건 잘못된 관점은 아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중에 느끼는 갈증이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속처럼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한 끝없는 갈증, 그것이다.

광야에서 느끼는 목마름은 율법 생활 속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구하는 갈증이다.

사람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룬다. 야곱도 그랬다.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의 안위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나



는 하나님과 다름에서 졌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다. 사람은 하나님께 육신의 문제, 육신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려고 다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간구한다. 그러나 그런 자기 생각이 부러질 때 하나님과 다름에서 이긴 자가 된다. 물은 말씀이고, 뼈는 의를 상징한다.

사람이 구하는 이 목마름은 풀리지 않는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다. 끊임없이 물을

퍼 나르고, 뼈와 같이 의를 상징하는 남편도 계속 갈아치웠으나 여전히 목이 말랐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넘쳐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고, 속에서 넘쳐난다는 건 거듭난 생명의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여야 은혜를 얻는지 자기 안에서 영원히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진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

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나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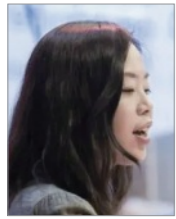
우리를 돌아보자. 어떤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야 벌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아 인생이 흥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신앙의 전부인지 않는가? 그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계속 목마른 물을 먹는 것이다. 그 율법 생활은 율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 전부로 알게나 가나안으로 설명하는 구원받은 삶으로 알면 안 된다. 그 삶의 끝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 곧 가나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대단한 광야의 삶도 가나안의 삶에 비할 수는 없다.

오늘 나는 신앙 안에 가진 갈증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줄다리기하듯 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자. 그게 야곱이 구한 육신의 목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면 안 되는 광야에서 구한 물처럼 율법 신앙 안에서 육신의 복락을 얻기 위해 벗어나지 않으려는 계명이 아닌지 돌아보자.

그 모든 건 야곱의 환도뼈와 같이 부서질 때, 하나님을 이긴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구원이다. 가나안에서 물은 스스로 구하기 충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가진 본성에서 말씀이 솟아나 외면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락을 누리는 게 구원이다. 율법 생활, 광야 생활은 거기로 가는 과정이다.

김홍덕 (Bible become My Story 모든 이에게, 오늘 나의 이야기로 블로그 운영자)

밴드와 함께 연주할 때 어느 영역까지 연주해야 하나요?



밴드와 함께 연주할 때, 피아노(메인 건반)가 어느 영역까지 연주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밴드는 상황에 따라 소규모의 여러 구성일 때도 있고, 풀 밴드로 모든 악기 구성이 갖추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주하는 공간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공간 울림의 차이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 따라 연주 영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음악적 스타일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1) 밴드 구성에 따라, 2) 공간에 따라, 3) 음악적 스타일에 따라 건반의 연주영역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살피고 나의 연주와 밴드 연주와의 울림을 들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밴드 구성에서 3가지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베이스 기타와 음역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베이스 기타는 화성의 기초를 이루는 코드의 근음과 드럼의 리듬을 같이 연주합니다. 이렇게 리듬 배경을 하거나, 유연한 화성진



행을 위해 멜로디한 연주를 하거나, 리듬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베이스 기타의 연주와 좋은 합주는 이 같은 베이스의 연주에 맞춰 적절한 연주로 돕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연주는 베이스 기타의 플레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건반 연주자는 간결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화성적으로 같은 음을 연주하지만 베이스 기타를 넘어서지 않는 셈여림으로 드럼과 폼비 플레이를 이루는 리듬에 방해되는 음들을 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음악의 전체적인 그림에 따라 아주 큰 울림이 필요할 때는 건반의 베이스음이 더 큰 역할로 도울 수 있습니다.

2) 어쿠스틱 기타의 연주와 건반 연주의 음역대가 중음대에서 중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로크는 건반의 울림보다 경쾌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빠른 곡에서는 어쿠스틱 기타가 리듬 배경의 메인인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느린 발라드에서는 건반이 메인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곡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곡에 따라

◆류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현재 한국 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어노인팅 사역팀의 메인건반으로, 사랑의교회 청년부 예배팀의 뮤직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메인을 정하고 다른 악기는 음역대를 살짝 높여 채우는 역할을 하거나 간결한 플레이를 해주면 두 악기의 장점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디 연주자와 메인 건반 연주자의 음역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건반 연주자라 코드 배경을 주로 습관처럼 연주하게 되어 음역대가 중복되어 지저분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디 연주자가 어떠한 음색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따라 간결한 플레이를 하거나, 보이싱의 변화를 주거나, 음역대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그 부분을 신디 연주자와 꼭 확인해서 음역대가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서로 협의하기도 하구요. 곡의 다이내믹의 변화가 생기고, 건반의 연주가 확대될 때에도 신디 연주자와 서로 음역대를 확인하며 서로 교차하며 연주하게 됩니다.

좋은 연주를 하려면 내 소리와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주님 목적이기도 우리에게 찬양이 없다면 기쁨과 감사를 어찌 표현하리요 만대로 찬양할 수 없다면 내영혼 메말라 우리방황하지요 만대로 찬양할 수 없다면 내육신 지치고 병마 사로잡지요 만대로 찬양할 수 없다면

소망과 꿈없는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생소한 기쁨이 팔팔 넘쳐들리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힘들고 아플때 새힘 차고넘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 주님따라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 자녀로 승리 할수있지요



◆고요나단 선교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를 수학한 후 현재 32년째 파라과이 산안포니오 지역에서 마랑가투 선교회 이름으로 현지인 자비랑 선교사역을 하면서 사랑의쌀 나눔사역, 밀가루 나눔사역, 미혼모사역, 마랑가투장로교회, 비바씨씨엔 TV & RADIO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지인 교회 두 곳을 개척 헌당하여 현지인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현재 세번째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슈퍼볼 MVP 패트릭 마흐스 “하나님이 더 나은 팀 되게 해”

11일 저녁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쿼터백인 패트릭 마흐스(Patrick Mahomes, 28)가 슈퍼볼 우승 직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패트릭은 작년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선수(MVP) 상을 수상하며, 통산 3번째 MVP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치프스는 1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알리전트 스타디움에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를 상대로 10점을 내리 따내며 25:22로 역전 승했다. 이로써 치프스는 불과 5시즌 만에 3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으며, 통산 4번째(1968년, 2019년, 2023-24년) 우승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은 2004-2005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19년 만이다.

마흐스는 이날 결승전에서 333야드를 던지고, 2번의 터치다운과 1번의 인터셉트를 기록했다. CBS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흐스는 팀이 때때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마흐스는 “이것은 매우 엄청난 의미를



제58회 슈퍼볼에서 패트릭 마흐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패트릭 마흐스 페이스북

갖는다. 올해 우리가 겪은 모든 역경을 극복한 것을 의미한다”라며 “모든 선수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하셨다”며 “우리 팀원들이 자랑스럽다. 그들은 훌륭하게 해냈다. 전설적”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졌으며, 리그의 새로운 플레이오프 연장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 방식은 첫 번째로 공을 받은 팀이 터치다운을 기록하더라도 양

팀 모두가 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흐스는 치프스가 왕조를 구축한 것 인지 묻는 질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밤을 축하하겠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젊은 팀을 구축하고 있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치프스의 구단주 클라크 헛트도 시상대에서 빈스 롬바르디 슈퍼볼 트로피를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헛트는 “우선 앤디(감독)와 풋볼팀, 코칭 스태프에게 놀라운 성과를 축하하고 싶

다. 실로 놀라운 5년이었다”며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흐스는 이날 경기가 “우리 시즌의 축소판이었다”면서 시즌 내내 게임을 지켜 준 팀 수비진과, 중요한 순간에 활약한 공격진의 공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28일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블터모어 레이븐스를 꺾은 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역경을 주셨다”고 했다.

마흐스는 “그리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더 강해졌다”라며 “정말 훌륭한 한 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곳(슈퍼볼 우승)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마흐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왔다. 그는 2023년 슈퍼볼 결승전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신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며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한 내가 되도록 항상 간구한다”고 했다. 유진 김 기자

홀라이프워십, 새 음원 발매 기념 사전 홍보이벤트

2024년 새 음원을 발매하는 홀라이프 워십이 사전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년 2월 20일 첫 음원 발매가 예정된 곡은 ‘그 사랑으로’와 ‘할렐루야 주 찬양해’ 두 곡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홀라이프 워십 측은 “발매 전 선공개 된 예배와 영상을 통해 이미 많은 단체와 교회로부터 특송을 위한 악보 요청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벤트는 홀라이프워십의 인스타그램(@wlorship)과 유튜브(wlorship) 쇼츠 영상을 통해 진행 중이다. ‘그 사랑으로’는 2월 1일부터 ‘듀엣 챗린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찬양해’는 2월 8일부터 ‘틀린그림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들은 모두 발매일인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예배팀과 개인 중 일부를 선정,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다.

한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홀라이프워십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삶



홀라이프워십이 새 음원 발매 기념 사전 홍보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SNS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는 기독교 문화 선교팀이다. 이번 신규 음원 발매에는 라이프워십이 후원하고 루아흐크리에이티브가 영상팀으로 참가했다. 문의: 010-9990-5935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 오전 | 5:00 | 00 CTS 새벽예배-한 흥 목사(새로운 교회)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 40 힐링스토리 50 조진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 00 성경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매점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 6:00 | 0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삼승교회 김형석 목사 30 주안찬 50 오늘 만나는 QT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
| | 7:00 |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성남교회) |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애 전주시온교회 황세형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 30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화 |
| | 8:00 |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50 CTS아침찬양 |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37강 - 조성욱 목사 "성경의 수와 예수님!" |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
| | 9:00 |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말씀노트 | 40 다규 더 로드 |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 10 새롭게 하소서 |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사로 |
| | 10:00 | 00 다니엘 기도회 5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 2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 00 오직 주님만 슬로 30 CBS 뉴스 |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
| 11:00 | 50 [생방송] CTS 뉴스 | 30 말씀의 생애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 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성경 속 회복이야기 | 00 율포원 |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림교회 최대한 목사 | |
| 오후 | 12:00 | 30 생명의 말씀-유영택 목사(하늘중앙교회) |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애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 00 TV 설교/든든교회 장항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리아타교회 이영은 목사 |
| | 13:00 |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00 말씀의 생애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서 목사 |
| | 14:00 | 00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매일 주와 함께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
| | 15:00 |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공 |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 | 16:00 | 30 생명의 말씀-최태준 목사(남포교회) | 00 말씀의 생애 성안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애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케빈 디영의 창세기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 00 CBS성서학당·요한계시록 2강 - 송태근 목사 "일곱 교회" (본문 - 요한계시록 1:4-8) 50 CBS 교회소식 |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
| | 17:00 |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클 | 00 말씀의 생애 순복음총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애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18:00 | 00 생명의 말씀-김복익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말씀노트 40 다니엘기도회 |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 10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 40 풍당 비디오키예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미교회 남상진 목사 |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 |
| 저녁 | 19:00 | 30 4인4색 김종철 감독의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 |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 30 로잔 선교적 대화 |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영동제일교회 천영대 목사 | 00 말씀의 창 - 인천제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
| | 20:00 |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애 감람교회 차영아 목사 |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자스텐 텐 미닛 (다윗과 요나단) 30 갓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
| | 21:00 |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규 더 로드 50 GOODTV 뉴스 |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37강 - 조성욱 목사 "성경의 수와 예수님!" 50 CBS 뉴스 |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
| | 22:00 | 30 다시보는 내개 매일 기쁘게 | 10 이단사이엔 |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잇쉬의 서재 시즌2 50 자스텐 텐 미닛 (달빛마을) | 10 새롭게 하소서 |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 23:00 |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 1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 00 주안찬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리바이츠워십 |
| | 24:00 |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칼럼 |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 | 1:00 | 00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 00 [말씀] 이용준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 00 선교는 지금 2 |
| | 2:00 |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 00 THE 깊이 공급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 3:00 |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 00 GOODTV 다규스페셜 |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용철 목사(와싱톤중앙로교회) | 00 율포원 | 00 만나 워십 |
| 4:00 |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진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주새누리교회) | 00 CBS성서학당·열왕기서 9강 - 김기서 목사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 (본문 - 왕상 8:22-53) 50 CBS 교회소식 |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 |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손님 여러분, KB국민은행 비행기가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객터미널 어디서든 은행 업무와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ATM이 인천국제공항 하늘에?

인천국제공항 입점 가상옥외광고 공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초현실 광고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행 갈 때 세상 빠른 환전 방법!

KB스타뱅킹 환전 신청 시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전용 QR수령증** 제공!
환전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KB스타뱅킹 환전 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월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65호(2024.02.01), 광고물 유효기간 2024.02.01.~2024.12.31.까지